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8호
2025년 1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contact@snuaa.org

“미주 동문들의 각별한 모교사랑에 항상 감사”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10월19일 개최한 ‘2025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은 미주에서 날아간 42명을 포함해 동문과 가족 2000여명의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다.

오래 전 한국을 떠난 75학번 이전의 미주 동문들에게 대학 캠퍼스 하면 문리대, 의대, 법대가 모여 있던 동숭동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사범대는 용두동, 상대 출신은 종암동 언덕이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정부의 종합화 방침에 따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들이 1975년 1월부터 한강 남쪽, 관악산 서북쪽 산자락에 자리한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시작했다.

캠퍼스 이전과 더불어 학과 체제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나 문리대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등 3개의 기초학문대학으로 나뉘었고 상대도 해체돼 경제학과는 사회대에 통합되고 경영학과는 경영대로 독립했다.

이어서 1980년 공릉동에 있던 공대, 2003년 수원에 있던 농대와 수의대, 2010년 연건동에 있던 보건대학원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서울대는 관악캠퍼스로 종합화됐다.

유홍림(정치학과 80) 모교 총장은 10월19일 홈커밍데이 행사에 앞서 미주 동문들을 호암교수회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열고 “관악 종합화는 단순한 캠퍼스 이전이 아니라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시작됐고 서울대의 50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사와 함께했다”면서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유홍림 모교 총장에게 모교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홈커밍데이 모교 찾은 미주 동문들 초청 유홍림 총장, 환영 오찬 베풀며 감사 인사 미주동창회, 발전기금 5000천만원 기부

“미주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서울대 직원 모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미주동창회 황효숙 회장은 이에 화답해 이날 미주 동문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모교발전기금 중 5000만원(약 3만5000불)을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유 총장에게 전달했다. 황 회

장은 이어 “2026년부터는 미주동창회가 장학생으로 선발한 우수한 한인 대학생들을 서울대 국제하게강좌(ISP)에 보내 서울대에서 학문적 경험을 쌓으며 모교의 국제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교와 미주동창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이경애(문리대 58) 동문도 이날 인문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주 동문과의 모임 자리 때마다 재치있는 건배사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온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이날도 ‘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건배사를 선보였는데 ‘평소에 잘하자’ ‘화끈하게 잘하자’ ‘통크게 잘하자’ ‘일 터지기 전에 잘하자’ 라는 뜻풀이로 동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홈커밍데이, 풍산 마당과 버들골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과 열정의 무대는 물리적 거리와 세대를 뛰어넘어 반세기 관악의 시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미주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1300여 명의 동문이 마음을 모아 총 1억 6000만원의 협찬금과 30여종의 물품을 후원했는데 미주동창회는 최신형 아이폰 에어를, 신응남 15대 미주동창회장은 140만원의 선불카드를 후원했다.

미주 동문들은 19일 홈커밍데이 행사에 이어 20일에는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대표로 있는 강남의 삼익약기 본사를 방문해 환영 만찬과 음악회를 즐겼다.

21일부터는 12명의 동문과 가족이 함께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하며 친목을 다지고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관계 화보= 14면>



모교 관악캠퍼스를 찾은 동문들이 정문 앞에서 환한 웃음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경애 동문이 인문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유홍림 총장에게 2만 달러를 전달한 후 감사의 꽃다발을 받았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동창회보 구독자님들께서 동문 지인 중 아직 동창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께 다음 달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contact@snuaa.org) 또는 미주동창회 주소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남가주 박종수(수의대 58) 동문, 서울대 '발전공로상' 수상

수의대에 누적 10억원 기부
모교 교육 역량 강화 기여

남가주 박종수(수의대 58· JJ Park Enterprises 회장) 동문이 서울대가 지난 10월14일 개최한 '개교 79주년· 개학 130주년· 관악 종합화 50주년 기념식'에서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에게 주는 '발전공로상'을 받았다.

박종수 동문은 수의과대학 졸업 후 미시간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진단검사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학문적 성취를 쌓는 동시에 모교 수의과대학에 누적 약 10억원을 기부해 '박종수 홀' 조성 및 생명공학연구동 설립 등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했으며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환경을 지원했다.

서울대는 "박 동문의 기부는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만큼 의미 있는 사례로, 모교의 교육 역량 강화와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날 '발전공로상'을 수여했다.

박종수 JJ Park Enterprises 회장과 함께 손경식(법학 57) CJ그룹 회장, 이내건(경제55)·이홍자(약학64졸) 공형에이전시 명예회장이 '발전공로상'을 받았다.



지난 2018년 '박종수홀' 명명식에 참석한 박종수 동문(우)과 박종수 동문부부.

모교의 이름을 높인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에는 고(故) 김근태(경제 65), 고(故) 박종철(언어84), 황동혁(신문90) 동문이 선정됐다.

김근태 동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이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열었다. 박종철 동문은 군사정권 시절 고문으로 숨진 민주 열사로, 그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황동혁 동문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세계적 성공으로 이끌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였다.

UPENN 화공학과 김도형 교수 패커드 펠로우십 연구자 선정

5년간 87만5천불 지원

과학계의 젊은 석학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연구지원상에 펜실베이니아대 화학·생체분자공학과 교수인 김도형(공대 08·사진) 동문이 선정됐다.

데이비드 앤 루실 패커드 재단은 10월 15일 2025년 '패커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펠로우십(Packard Fellowships for Science and Engineering)' 수상자로 20명의 신진 연구자를 발표했다. 김 교수를 비롯한 20명의 수상자는 향후 5년간 각각 87만5000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김 교수는 공학대학 내 '나노전기화학 및 계면 연구실(KLEIN Lab)'을 이끌며 고체 촉매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원자 수준에서 정밀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

지 생산·연료 합성·화학 제조 등 산업 핵심 공정의 효율을 높일 차세대 촉매 설계의 원리를 규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패커드 펠로우십은 연구자가 대담하게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라며 "에너지와 연료, 소재를 생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2년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한 그는 2018년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후연구를 수행했다. 2022년부터 펜실베이니아대 조교수로 부임해 나노 규모 계면전기화학 연구를 이끌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오픈하우스에 참석한 동문들.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며 남가주 동문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사무실 개소식 케이크 커팅식. 채규황 회장(오른쪽)과 양수진 차기 회장(왼쪽)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가운데는 임춘택 전임 회장.



한국 총동창회장, 남가주 동창회에 전용 사무실 선물

공간 무료 임대해주고 비품 일체 제공
동문 교류 활성화와 사랑방 역할 기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4일 세리토스 오피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 동문들이 참석해 남가주 동문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무실은 한국 총동창회장이자 건물주인 김종섭 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 회장은 회장 데스크와 회의용 고급 테이블, 의자 등 비품 일체를 제공했으며, 공간 또한 무료 임대

와 유틸리티 부담 없는 조건으로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채규황(법대 69) 회장은 "이처럼 훌륭한 공간을 흔쾌히 내주신 김종섭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남가주 동문회의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수진(간호대 80) 차기 회장도 "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용 사무실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동문들이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모습.

언제든 들러 자유롭게 교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연 사무실은 약 1,500평방 피트 규모로, 회의실과 세미나 및 전

시회를 열 수 있는 다목적룸 등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각 단과대 모임은 물론 각종 세미나,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오픈하우스에는 노명호(공대 61), 김상찬(문리대 65), 성주경(상대 68), 임춘택(상대 68) 등 전임 회장들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황효숙 미주동창회장도 축하 플랜트를 보내 남가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 주소: 16511 Carmenita Road, Cerritos, CA 90703

▶ 문의: 채규황 회장 (818) 489-7892 / 양수진 차기 회장 (714) 335-2148

ChatGPT 배우는 'AI 디스커버리 클럽' 출범

미주동창회, 동문 2300여명에 공지 메일
동문들 뜨거운 호응, 하루만에 정원 마감
1차 30명 회원, 10주간 매주 줌으로 공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토론하는 AI 디스커버리 클럽을 창단했다.

미주동창회는 지난 10월 16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2300여명의 동문 이메일을 통해 AI 디스커버리 클럽 창단과 회원 초청 소식을 알렸는데 하루만에 미 전역에서 30명의 동문이 참여를 희망하는 답신을 해 회원 모집은 조기에 마감됐다.

IT 담당 고문인 한홍택(공대 60) 박사는 “그동안 미주동창회 차원에서 준비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공지해도 별 호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공지가 나가자마자 하루만에 정원 20명을 훌쩍 넘겼다”면서 “AI 활용 방법에

대한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한 동문은 평균 학번이 65학번이고 최고령은 53학번, 최연소는 81학번이었다.

한홍택 고문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참여하면 진행이 힘들 것 같아 회원 수를 제한했다”며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해가면서 동문들의 반응을 살펴 더 많은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디스커버리 클럽은 매주 수요일 저녁 5시(서부시간 기준)부터 6시 30분까지 총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AI의 기본 개념부터 ChatGPT와 같은 최신 도구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다양한 활용법까지, 실습 위주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동문들은 수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 검색, 글쓰기

와 이미지 생성, 뉴스 요약 등을 하며 AI를 일상의 강력한 조연자로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은 “제18대 미주동창회의 최대 과제는 동문들을 위한 의미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실질적 도움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디스커버리 클럽과 같이 세대별로 동

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동창회는 젊은 동문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을 배우고 조언을 듣는 ‘선후배의 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8대 미주동창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 구성 첫 회의 개최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와 활용 방안 논의”

2025년 7월 1일 제18대 집행부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동창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첫 단계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0월 1일 화상회의(Zoom)를 통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미주동창회는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 임원들이 동창회의 주요 활동을 논의·결정하여 운영해왔는데, 18대는 미주동창회 회칙에 의거하여 이사회 기능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며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한 단계 강화했다. 이번 결정은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사회는 델라웨어주 법인 인증서와 회칙(Bylaws)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구성되었다. 이사 수는 미국 국

세청(IRS)에 보고해 온 Governing Body (이사) 기준을 반영해 11명으로 결정됐다.

새롭게 추천된 11명의 이사에는 당연직 기금관리위원인 ▲이상강 전임 회장, ▲황효숙 현 회장, ▲박상근 차기 회장이 포함되었다. 집행부 임원으로는 ▲박현아 사무총장, ▲손창수 재무국장, ▲임동근 총무국장(추천되었으), 이 외에 ▲신응남 법률담당 고문(15대 미주동창회장), ▲한홍택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 회칙위원회 위원장, ▲문성인 지부지원 담당 고문, ▲이희운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고문이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추천 이사들은 2026년 6월에 예정된 제35차 평의원 회의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황효숙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 덕분에 미주동창회 자산이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156만 4,082달러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히며, “동문들의 후원 속에 지속가능한 동창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정책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마련해 자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단순 예치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명확한 원칙과

목표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장학사업, 자선사업(Charitable), 그리고 지부 지원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IRS 그룹면세 보고 정상화와 지부 지원체계 강화 등 중장기 과제도 검토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2000년대 학번 임동근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회의 자료, 안건 구성, 발표 자료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슬라이드로 프레젠테이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안건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논의되었다. 젊은 세대의 참여가 회의에 전문성과 활력을 더한 순간이었다.

미주동창회는 분기마다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음 회의는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글=임동근(농생대 대학원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8대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임원 일동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광복 80주년 기념, 동문들이 빚어낸 감동의 하모니

지난 10월 3일과 5일, 보스턴과 뉴욕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음악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번 공연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보스턴과 뉴욕의 우리 동문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성사시킨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보스턴 공연은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을 지낸 김병국(공대 71) 동문이 창립해 이끌고 있는 보스턴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가 주최했으며, 뉴욕 공연은 정경희(음대 82) 동문이 회장으로 이끌고, 강 에드워드(사대 60) 동문이 이사장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음악재단(KMF)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서울대 화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마치고 작곡가로 편입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곡가가 된 김택수(자연대 99·샌디에고 주립대 작곡과 교수) 동문의 신작 칸타타 ‘들풀’이었다. 특히 마지막 대서사적 피날레 ‘아리랑 연가’가 오케스트라와 네 명의 솔리스트의 웅장한 화음으로 울려 퍼질 때,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짓밟혀도 꺾이지 않고 다시 피어나는 들풀처럼, 이국의 땅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한인사회와 그 역사를 떠올리며 벅찬 감동과 자부심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공연은 본래 일제강점기 동부 지역 한인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뉴욕한인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일 뉴욕 타운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공연을 마치고 김택수(왼쪽에서 네번째) 동문과 출연 음악가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10월초 보스턴과 뉴욕서 잇따라 열린 기념 음악회 김병국(공대 71) 동문이 설립한 보스턴한미예술협회 정경희(음대 82) 동문이 회장인 KMF가 공동 주최해 작곡가 김택수(자연대 99) 동문의 칸타타 ‘들풀’ 초연

2021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됐다. 이후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겪던 중, 동문들이 주도하는 예술단체가 힘을 모으며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공연이 열린 맨해튼 43번가의 타운홀은 1921년 3월2일, 한인들이 3·1운동 기념 한인연합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핀 역사적인 장소이기

도 하다.

김택수 동문의 칸타타 ‘들풀’이 공연 2부를 가득 채웠다면 공연의 1부는 서울대 음대 교수 출신으로 현재 보스턴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피아노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백혜선 피아니스트의 무대로 채워졌다.

백혜선 교수는 보스턴으로 유학 온 음대생들의 정신적 멘토이자 ‘대모

였던 변화경(음대 66) 교수의 제자다. 변화경 동문은 ‘건반 위의 사색가’로 불리던 피아니스트 고(故) 러셀 서먼(2023년 작고)과 함께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교수로 재직하며 뛰어난 한국인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백혜선 교수와 손민수 교수가 현재 나란히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18세)로 우승한 임윤찬이 손민수 교수의 제자로, 스승을 따라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수학 중이다.

동문들의 협력으로 완성된 이번 음악회는 한인 이민사에 새겨진 고난과 희망의 역사를 음악으로 되살리며, 그 울림 속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감동의 순간을 자아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기록했다.

참쌀떡에서 아리랑까지, 일상의 소리를 예술로 승화

화학도로 시작해 세계적 작곡가 된 김택수(자연대 99) 동문

김택수 동문(자연대 99)은 원래 전공이 음악이 아닌 화학이었다. 서울대학교 3학년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따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그런데 명확히 정해진 것처럼

받고 지금은 샌디에고 주립대학 작곡과 교수로 있다.

그가 현대음악 작곡가로 이름을 알린 건 2021년 전세계에서 574명의 작곡가들이 참가한 국제적 권위의 ‘발로우 작곡상(Barlow Prize)’ 경연대회



올린을 듣고 서울에원중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고 결국 서울과학고로 진학했다.

하지만 그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매사를 분석적으로, 문제해결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됐고 그런 그의 습관은 다른 많은 현대음악들과 달리 난해하지 않고 제목만 들어도 곧바로 그 곡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다.

그의 음악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 옛날 골목길에서 울려 퍼지던 “메밀묵~ 참쌀떡!” 외침은 합창곡 ‘참쌀떡(Chopsalteok)’으로 만들어졌고, 부산 바닷가에서 직장인들이 술잔

을 부딪치며 냈던 소리는 관현악곡 ‘짠!!(Zzan!!)’으로 탄생했다.

체육관에서 농구할 때 공 튀기던 소리는 농구공 대신 타악기와 현악기의 소리가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는 “바운스! Bounce!”로 만들어졌고 그가 어려서 접한 국악은 ‘더부-산조(Dub-Sanjo)’란 제목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옮겨져 한국이라는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세계인의 호평을 받았다.

김 동문은 “특별한 것 없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리 한 음, 생각 한 줄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시작된다”며 “같은 일상이라도 남들과 조금은 다른, 외국인에게 신선하게 느껴질 만한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언제나 그에 대한 답은 한국에서의 추억이었다”며 “한국에서 겪은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도 영감의 귀중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수 동문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선보인 칸타타 ‘들풀’은 전체 14개 악장, 35분 가량 되는 곳으로 미국 독립선언문, 변영로의 시 ‘논개’, 신사임당 시, 자유의 여신상을 노래한 미국 시 등이 악장마다 중요한 모티브가 되며 마지막 악장은 우리 민족의 민요 ‘아리랑’을 모티브로 했다.

“음악하면 재미있고 신나” 작곡과 편입하고 유학

2021년 국제적 권위의 상 받으며 인기 작곡가 돼

보였던 그의 삶은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음악으로 방향을 틀었다.

“화학을 공부할 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앞으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할 때만큼은 하고 싶은 일이 쉽없이 떠올랐어요. 음악이 재미있었고 하면 신이 나요.”

작곡과 수업을 하나둘 청강하기 시작했고 화학과를 졸업하고는 음대 3학년으로 편입해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로 나섰다. 대학원까지 마친 그는 2011년 미국 유학에 올라 인디애나 주립대학(블루밍턴)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면서다.

지금 그는 뉴욕 필하모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같은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이 잇따라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독일의 앙상블 모데른 같은 최정상급 현대음악단체와 스미소니언 박물관, 전미오르간협회 등이 새 작품을 위촉할 정도로 주목 받는 작곡가가 됐다.

사실 김 동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트리오(정명화, 정경화, 정명훈)의 활약에 매료된 그는 ‘제2의 정경화’를 꿈꾸며 일곱 살부터 배운 바이

30여년 이어 온 선후배 우정, 감동의 음악회로

필라델피아 김성지(음대 92) 동문, 조정현(수의대 58) 박사 위해 특별한 공연

필라델피아 김성지(음대 92) 동문에 필라델피아 동창회장을 역임한 조정현(수의대 58) 박사는 친정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두 동문의 인연은 김성지 동문이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더 넓은 무대에서 소프라노로서의 꿈을 펼치기 위해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원으로 유학을 온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알고 보니 동문이었다.

그 후 조정현 박사는 김성지 후배가 공연할 때마다 공연장을 찾아 응원했다.

“조 박사님은 항상 제 공연에 오시려 애쓰셨어요. 한 번은 제가 맨해튼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공연을 보기 위해 일찍 퇴근하셨죠. 그때 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셨었는데, 공연이 끝난 뒤 저희를 시내의 아름다운 한식당에 데려가 주셨어요. 아직도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기억나요.”

지난 10월 17일, 조 동문이 거주 중인 블루벨 플레이스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고향의 봄’과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조 동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거동이 불편해진 그는 지난 7월 이곳 요양원으로 이주했고 조 동문에게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던 김성지 동문이 그를 위해 작은 음악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음악회에는 조 동문이 40년 넘



김성지 동문(왼쪽)이 요양원에 있는 조정현 박사를 방문했다. 오른쪽 사진은 김성지 동문이 요양원에 사는 분들을 초청해 로비에서 연주회를 하고 있는 모습.



유학생 시절부터 공연 때마다 찾아와 응원

“친정아버지 같아 ... 받은 사랑에 작은 보답”

지역 언론서 감동적 스토리로 크게 소개

게 다닌 임마누엘 교회의 목사 부부와 다수의 동문들이 함께했다. 뜻밖의 손님을 맞은 조 동문은 감격의 눈물을 보이다가, 동문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다가, 음악회를 구경하러 온 요양원의 미국인 친구들에게 이들과의 인연을 자랑스럽게 들려주며, 이날 하루만큼은 잔치상의 주인공처럼 행복해했다.

이날 음악회와 30여 년에 걸친 두 동문의 ‘특별한 우정’은 감동적인 스토리로 지역 언론에도 소개됐다.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한국과 미국의 양로원, 로컬 도서관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클래식 기타와의 듀오나 피아노 반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주를 해왔고 조 박사님은 저에게 친정아버지와 같은 분이구나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성지 동문은 지금까지 미국과 해외에서 30편 이상의 오페라에 출연했으며, 현재 뉴저지주 로완 칼리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조정현 박사는 뉴저지주 캠프 카운티 보건국장으로서 근무하다 은퇴한 뒤,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미국 수의학협회 교육인증위원회(AVMA-COE)로부터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을 획득하는데 앞장서 모교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그의 노력 덕분에 서울대 수의대 졸업생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수의과대학에서 별도의 과정을 다시 밟지 않고도 북미 지역 수의사 국가시험인 NAVLE(North American Veterinary Licensing Examination)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공학 박사과 언어학 박사 모친이 일군 뿌리교육 15년

남가주 ‘발렌시아 한국어학교’ 설립 김정우(공대 80) 목사

남가주 LA 북쪽 신도시 발렌시아. 한인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던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정규 한국어반이 개설된 학교가 없었고, 한인교회 부설 주말 한국학교마저 문을 닫자 2세 청소년들은 모국

어와 점점 멀어졌다. 그때 지역사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은 목회자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서울대 공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UPenn컴퓨터정보학 석사를 거쳐 USC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우 동문은 특허 변호사의 길을 준비하던 중 소명을 따라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고, 2006년 발렌시아 새누리교회를 개척했다. 목회와 더불어 한인사회를 섬길 방법을 찾던 그는 2010년 교회당에서 작은 책상 몇 개를 놓고 ‘발렌시아 한국어학교(Valencia Korean School)’의 문을 열었다. 첫 학생은 다름 아닌 그의 두 아들이었다.

이 학교의 든든한 뿌리에는 그의 어머니 홍연숙(88) 교수가 있다. 이대 영문과에 다니다 1956년 UPenn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1980년대 중반 한국어반 개설을 주도해 미국 대학 내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킨 인물이다.

정년 퇴임 후에도 연변과학기술대에서 조선족 학생들을 가르치고, 멕시코 티화나 UABC대학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해 현지 청년과 한인 후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 공로로 2017년에는 LA 총영사관 추천으로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어머니 홍 교수는 아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해 발렌시아 한국어학교 초대 교장을 맡았다.

그로부터 15년.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거쳐 갔다. 매주 금요일 오후 열리는 수업은 기초



발렌시아 한국어학교를 세워 15년째 뿌리교육을 하고 있는 김정우 동문(오른쪽)과 모친 홍연숙 여사.

한인 차세대 양성 위한 지역사회 섬김

5세부터 고등학생까지 1000여명 배출

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 수준별로 나눠 운영되며 5세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다.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사물놀이, 한복 만들기, 전통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김정우 동문은 목회와 더불어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한인 이민자들의 정신건강 돌봄에도 힘쓰고 있다. 그의 꿈은 발렌시아에 ‘크리스천 스쿨’을 세우는 것이다. 한국어와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키워내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언어와 뿌리, 믿음을 동시에 심어주고 싶어하다.

작은 개척 교회에서 시작된 뿌리교육의 씨앗은 15년을 거치며 지역 한인사회를 묶어주는 공동체이자 세대와 문화를 이어가는 배움터가 되었다.

수소 기반 청정 에너지 스타트업 APGREEN 소개

김량국(사대 92)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사 과정 중)의 기업 APGREEN의 혁신적인 기술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APGREEN은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수소 기반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박 동문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집약적 시설들이 직면한 전력 공급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모임은 평소와 같이 회원사들의 간단한 현황 공유로 시작되었으며, 곧 이날의 핵심 박태윤 동문이 이끄는 APGREEN의 발표가 이어졌다.

APGREEN의 APG 시리즈는 도시 가스나 LNG를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물 사용량이 적고, 소음이 낮으며, 도심 지역에서도 설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디젤 발전기나 배터리 UPS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압 수소 저장의 위험성도 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이었다.

박 동문은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및 난양공대(NTU)와의 실증 사업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싱가포르가 2050년까지 전력의 50%를 수소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APGREEN의 기술이 큰 기회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APG-20 모델은 한국 최초로 CPOX(촉매 부분 산화) 시스템으로 KTR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참석자들은 수소 생산 비용, 안전성,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특히 데이터센터 백업 전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탄

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력생산에 경험이 풍부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조언이 이어졌다.

기업넷은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동문 기업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정기 모임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APGREEN을 이끌고 있는 박태윤 대표.

미주동창회 웹사이트는 ‘동문 온라인 사랑방’

동문 행사 · 소식에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득’

2009년부터 최신호까지 동창회보 PDF 한곳에

서울대 관련 모든 웹사이트로 통하는 지름길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unaa.org)가 각 지부에서 열리는 행사와 동문 소식뿐만 아니라 한층 더 다채롭고 알찬 콘텐츠로 미주 동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동문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방문한 동문은 없다고 할 만큼 웹사이트를 찾은 이들은 곳곳에 가득한 읽을거리와 볼거리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우선, 웹사이트 상단에는 모교 서울대(SNU)와 한국총동창회(SNUA) 홈페이지, 그리고 남가주 동문들이 과거 활발히 운영했던 아크로폴리스 타임스(Acropolis Times) 아카이브가 링크돼 있다.

서울대 관련 사이트뿐 아니라 미국 주요 대학 동창회와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미국 내 모든 대학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도 마련돼 있으며, 동문들의 관심이 높은 단체인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재미한인여성과학기술자협회(KWISE) 등의 사이트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미주동창회가 동창회 활동 지원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줌(Zoom) 링크도 함께 배치했다.

동창회 관련 모임이나 회의에서 줌 링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문은 링크 바로 옆에 있는 Contact을 통해 미주동창회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한홍택(공대 60) IT 담당 고문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로고 바로 아래

메뉴에는 미주동창회 각 지부와 한국총동창회 산하 단과대별 동창회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챕터(Chapters) 메뉴가 자리하고 있다.

한홍택 고문은 “지부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챕터 홈페이지에 실릴 기사를 미주동창회(contact@snaaa.org)로 보내주면 도와드릴 것”이라며 “지부 홈페이지가 동문들이 소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미주동창회의 역사적 기록물 보관소라 할 수 있는 News 메뉴에는 2009년 7월호부터 최근호까지의 미주동창회보 PDF가 연도별 · 월별로 정리돼 있어, 동문들은 원하는 시기의 동창회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번엔 News 메뉴에는 동문들이 즐겨 보거나 다른 동문들과 공유하고 싶은 추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는 셰어(Share) 코너가 새롭게 마련됐다.

현재 구글 최신 AI 모델 제미니(Gemini)의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100%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 이진형(공대 95) 동문이 추천한 ‘다큐온: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AI 기술 패권 전쟁 도전기’, 이경동(공대 59) 동문이 추천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쇼팽 녹턴 2번 연주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브레인네트워크 메뉴에는 시애틀 김재훈 동문 주관으로 미주동창회가 매달 줌으로 개최하는 SNUAA 포럼 내용과 미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들의 모임인 창업네트워크(기업넷)에서 소개된 기업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한홍택 고문은 “미주동창회보는 한 달에 한 번만 발간되고 지면의 제약이 있지만, 웹사이트는 소식을 보내주면

바로 올릴 수 있고, 동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다”며 “미주동창회 웹사이트가 동문들이 즐겨 찾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동문 온라인 사랑방’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홍택 동문이 추천한 사라 장의 연주 영상.

동문 추천 유튜브 영상 공유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께,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동창회는 회원님들이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을 모아 동문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웹페이지 “Share”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감을 주는 강연, 멋진 문화 공연, 최신 기술 튜토리얼, 또는 재미있는 창작 프로젝트 등, 회원님의 마음을 움직인 유튜브 콘텐츠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추천은 동문 커뮤니티의 관심사와 열정을 반영하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컬렉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웹(https://snuua.org)

에 있는 ‘영상 추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신 영상은 검토 후 모든 회원이 즐길 수 있도록 “Share” 페이지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동문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하며, 우리 네트워크의 지식과 창의성을 선보일 기회입니다. 함께 교육적이고, 재미 있고,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추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contact@snuua.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공부하며 돈 번다’ ... 주식투자는 은퇴 후 삶의 활력소

한홍택(공대 60) 동문이 전하는 주식투자의 즐거움

첫째는 생산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퇴근 없이 유연한 일상을 살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 나는 첨단 기술에 대한 공학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낯설었던 주식 투자의 세계로 첫걸음을 내디딘 이유이다. 이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노년기에 희망과 지적 활력을 갖게 해주는 여정이 되었다.

초보자의 여정, 10년 안목으로 내딛다

은퇴 전까지 주식 투자는 금융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낯선 분야였다. 경험이 없었기에,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시장을 익혀 나갔고, 초기에는 여러 종목에 소액을 분산 투자하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투자를 공부할수록, 단기적 변동성보다 미래 기술의 가치에 집중하는 전략이 자신의 지적 배경과 목적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는 평생을 바쳐온 공학적 통찰력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테슬라는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에너지 저장 기술 등 미래를 지배할 모든 첨단 분야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일론 머스크 CEO의 창의성과

공학자의 통찰로 확신 갖고 테슬라 선택

에 더 잘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소수의 유망한 종목에 집중하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장기 투자 전략의 중심에는 테슬라(Tesla, Inc.)가 있었다.

추진력은 그 어떤 기업가도 추종을 불허하며, 그가 스페이스X, X.com, 뉴링크, 보링컴퍼니 등 다양한 기업과의 강력한 시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미래 통합 기술’에 대한 공학적 이해와 확신을 바탕으로 투자들이

은퇴는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쉼표다.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바친 나에게, 은퇴 후의 삶은 세 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홍택 박사는 공학자의 통찰로 확신을 갖고 테슬라를 선택했다.

어가고 있다.

또한 AI 반도체 혁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NVDA)와 안정적인 애플(AAPL)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기술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AI는 컴퓨터 과학 배경이 제한적인 늦깎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지적 도전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은퇴 후의 주식 투자는 단순히 노후

투자는 재정적 자유와 지적 성장의 통로

지금까지의 투자 성과는 ‘감사할 만큼’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운이었다. 그러나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근로 소득 외의 투자 소득은 재정적 안정감을 선사하며,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사회적 자유를 제공해 준다.

투자는 결국 심리 싸움이다. 매일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으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안목과 미래를 보는 ‘마음수양’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시장 정보와 기술 동향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현시대의

자금을 불리는 행위를 넘어, 시대에 뒤지지 않고 삶에 활력을 더해 주는 여정이다. 자신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경제적, 지적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도전인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생의 공학적 지식에 기반한 침착함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새로운 기술(AI)을 배우는 자세는 나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시장을 꾸준히 공부하고,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운다면, 주식 투자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여는 가장 생산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문사진 한 컷!

버монт 그린 마운틴에서 본 추석 보름달



그린 마운틴 산 속에서 본 휘영청 보름달 모습. 최진민 동문이 찍어 보내왔다.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을 지낸 최진민(공대 71) 동문이 지난 10월 초 4박5일 일정으로 버몬트에 있는 그린 마운틴(Green Mountain National Forest)으로 단풍놀이 겸 한가위 달맞이 백패킹을 다녀왔다. 한국의 추석이었던 10월6일 밤 12시쯤 산 속에서 본 보름달과 달무리 풍경을 찍은 것이라며 사진을 보내왔다.

최진민 동문은 “짐승 소리는 커녕 개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 오직 모닥불에 자작나무 타는 소리,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절로 떨어지는 낙엽소리 뿐, 산 속의 밤은 정말 고요했고 보이는 것이라곤 중천에 휘영청 떠 있는 보름달과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만 있을 뿐”이라며 “달과 별 그리고 주변의 우거진 나무들, 이 친

구들과 보내는 밤이 너무나 편안하고 평화롭다”고 전했다.

최 동문은 “모닥불 앞에 앉아 옛 추억을 더듬으며 보름달을 보다보니 이백의 ‘월하독작’이란 시가 생각난다”며 “집에 담가둔 포도 발효주가 간절하게 그립다”는 소회도 전했다.



텐트 앞에 앉아 달맞이를 하는 최진민 동문 부부.

뉴욕 최형무(법대 69) 동문, 종신이사 합류

뉴욕의 최형무(법대 69) 동문이 미주 동창회에 3000달러를 기부하며 종신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최형무 동문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대 동창회장을 역임했고 기독교실업인회 회장과 플러싱한인회 이사장, 평통 자문위원 등을 하며 지역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도 앞장 섰다.

최 동문은 “서울대를 나왔다든 것은 개인의 영예이자 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도 함께 안겨 준다”며 “서울대 출신들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듯, 미국에서도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동문은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MBC기자를 했으며 1982년 뉴욕으로 이민 와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10



년 가까이 뉴욕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서 일했다. 지금은 한국일보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최 동문의 형은 최종무(상대 63) 동문으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템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지난해 은퇴했다.

칩을 감싸던 껍질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두뇌로

SNUAA 10월 포럼

반도체 Advanced Packaging 기술의 부상과 AI 시대를 통한 진화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주최하고 워싱턴주 시니어클럽의 김재훈(공대 72) 박사가 주관하는 SNUAA 10월 포럼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5시(서부시간) ‘반도체 Advanced Packaging 기술의 부상과 AI 시대를 통한 진화’를 주제로 열렸다. 샌디에고 지부 오계환 박사의 추천으로 SK 하이닉스 아메리카 부사장인 이재식 박사가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이재식 박사는 캐나다 Waterloo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메타(Meta), 구글(Google), 엔비디아(NVIDIA), 퀄컴(Qualcomm) 등 글로벌 IT기업을 거쳐 현재 SK하이닉스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전문가다. 이재식 박사의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AI 기술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gent AI), 물리적 인공지능(Physical AI) 등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하드웨어의 데이터 처리 능력 역시 빠르게 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논리 회로(Logic) 중심의 설계가 중시되었다면, 이제는 논리와 메모리(Logic-Memory)를 시스템 차원에서 최적화하는 ‘시스템 기술 공동최적화(System Technology Co-Optimization)’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첨단 패키징(Advanced Packaging) 기술이다.

단순한 공정 기술을 넘어, 이 패키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적화하느냐가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식 박사는 강연 서두에서 “오늘은 반도체 패키지 엔지니어링(Package Engineering)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거치며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며 “이 기술을 활용해 AI 하드웨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도전(Challenges)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반도체 패키징은 단순히 ‘칩을 외부 충격과 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패키징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성능과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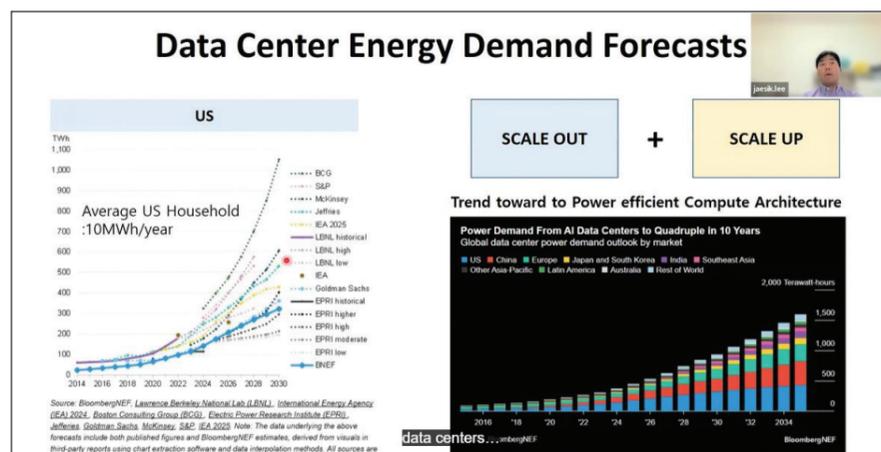
70~80년대까지만 해도 단일 칩(single die)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은 단순한 구조였으나, 반도체의 미세화 한계가 다가오면서 3D 적층, TSV(Through-Silicon Via), Fan-Out 패키징 같은 첨단 기술들이 등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와이어본딩 패키징을 ‘국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고속도로’에 비유했다.

“예전 방식은 연결선이 길고 굴곡이 많아 데이터가 우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5D 패키징에서는 수많은 마이크로 범프(Micro Bump)를 통해 칩 간 연결이 짧고 넓게 이뤄집니다. 즉, 1차선 도로에서 10차선 고속도로로 바뀐 셈이죠.”

이러한 구조는 GPU와 HBM 간의 통신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 박사는 “HBM의 경우 범프 간 간격이 40마이크론 정도로, 머리카락 네 가닥을 나란히 둔 수준”이라며 “그만큼 데이터가 빠르게 흐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성능 컴퓨팅(HPC)과 인공지능(AI) 연산에 최적화된 패키징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CPU, GPU, 메모리, AI 전용 프로세서를 하



SK 하이닉스 아메리카 부사장인 이재식 박사가 SNUAA 포럼에서 반도체 Advanced Packaging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I시대엔 논리와 메모리 결합한 하드웨어 필요

반도체 성능 · 효율 결정짓는 핵심은 패키징

AI 위해선 고밀도 연결 · 시스템 최적화 필수

기업들, AI · 반도체 융합할 인재 확보에 고전

나의 패키지 안에 고속으로 연결하는 ‘Chiplet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는 마치 여러 악기가 각각의 파트를 담당하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각 반도체 칩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패키징 기술을 통해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식 박사는 “패키징 기술의 진화는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니라, 미래 시스템 설계 철학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패키징 엔지니어는 이제 회로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적 사고를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NVIDIA의 최신 AI 칩이나 AMD의 서버 프로세서들은 모두 고급 패키징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이들은 칩과 칩 사이를 미세한 실리콘 인터포저(silicon interposer)로 연결하거나, Fan-Out RDL(Redistribution Layer)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경로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도시의 교통체계를 고속도로망으로 재편하는 것처럼, 데이터 흐름의 병목을 줄여 시스템 전체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인다.

특히 NVIDIA는 첨단 패키징과 함께 효율적인 냉각 구조를 설계해 GPU 성능을 극대화하며, AI 연산에 최적화된 데이터 흐름을 구현하는 데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엔비디아는 고밀도 연결과 Chiplet 구조를 활용한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패키징 기술이 AI 하드웨어 혁신의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AI 알고리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물리적 하드웨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단순한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아니라, 칩과 칩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칩 설계, 재료공학, 기계·열 해석, 전자기 시뮬레이션 등 다학제적 지식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곧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승부처이자, AI 혁신의 숨은 열쇠다.

이재식 박사는 “앞으로의 반도체 혁신은 미세공정이 아니라 집적의 방식, 연결의 기술, 통합의 구조에서 나올 것”이라며 “패키징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공정’이 아니라 ‘첫 번째 설계 단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 질의응답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동문은 “AI용 칩을 자체 설계하는 구글·아마존·테슬라 등이 결국 어디에서 제조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식 박사는 “현재 TSMC가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며 “삼성과 인텔도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기술력과 신뢰 측면에서 아직 격차가 있다”고 답했다.

TSMC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객사들은 가격 상승과 생산 용량 제약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텔과 같은 대체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TSMC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기술적·공정적 격차가 크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HBM(고대역폭 메모리)이다.

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공정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며,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로 자리 잡았다. 이재식 박사는 “HBM2 시절에는 삼성이 강세였지만, HBM2E 세대부터 하이닉스가 품질과 열 효율에서 앞섰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MR-MUF’(Molded Resin with Underfill Pressure) 공정을 사용해 실리콘 필러 함량을 높임으로써 열전도성을 개선했다. 반면 삼성은 필름 형태의 ‘TCNCF’공정을 사용했는데, 열 관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 차이가 엔비디아의 선택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HBM은 기존 메모리처럼 단독 제품이 아니라, GPU 등과 밀접히 연결되는 고급 패키징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제조사와 시스템 기업 간의 긴밀한 공동개발(코디자인)이 필수적이며, 하이닉스는 이 협업 체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I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연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열 관리와 패키징 구조, 파운드리 협업 능력의 종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냉각 기술은 공랭에서 액랭, 더 나아가 실리콘 내부의 마이크로 채널 냉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패키징은 2.5D에서 3D로 이동 중이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엔비디아 등 각 기업의 역할은 더욱 세분화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새로운 분업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또 기술적 진화 못지않게 중요한 ‘인재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재식 박사는 “패키징 기술은 재료,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복합 영역이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반도체 전공자의 수가 줄고, 젊은 세대가 하드웨어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설계하고 구현할 인재 풀은 제한되어 있다.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설명회를 넘어, 미래 산업의 방향과 인재 육성의 절실함을 일깨운 자리였다. AI 시대를 견인할 반도체 혁신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기술을 완성한다는 메시지가 깊이 울려 퍼졌다.



미혼의 젊은 학생 동문들이 최화진 조지아 지부 회장 집에 모여 윗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가을 야유회에서 웃음꽃을 피운 동문 가족들.

윗놀이 즐거운 젊은 동문들 ... 게임하며 '웃음꽃' 야유회

조지아 지부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회장 최화진·음대 85)는 지난 10월 2개의 동창회 행사를 가졌다. 먼저 10월4일에는 Duluth 에 소재한 McDaniel Farm Park에서 가을 야유회가 열렸다.

50년대 학번 대선배들부터 20대 젊은 유학생들까지 100명에 가까운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화창한 가을별을 즐기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푸짐한 식사에 건강체조 배우기, 년센스 낱말 퀴즈 게임 등 야외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3시간 넘게 웃음꽃을 피우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 10월 11일에는 미혼의 젊은 동문 후배들을 위한 모임이 최화진 조지



조지아주 동문들이 10월4일 Duluth 에 있는 McDaniel Farm Park에서 가을 야유회를 열고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아 지부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조지아텍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비롯해 근처 여러 대학교에 공부하는 14명의 대학원생들과 임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박사과정 중인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동문들이었다.

참석자들은 오후 6시에 모여 10시가 훌쩍 넘을 때까지 함께 윗놀이를 즐기며 친목을 나눴다.

한편, 최화진 지부 회장은 오는 11월 8일 조지아주 스와니에 있는 그레이스홀에서 연주회를 한다. 베토벤에서 쇼

팽까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에 이르는 음악 여정을 주제로 연주곡들을 선정했다. 최화진 동문은 콘서트 피아니스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애슈빌 캠퍼스 음대 교수를 하고 있다.
글=최화진(음대 85) 지부 회장

학계·산업계 선배들, 후배 학생들 이력서 작성 도와

미네소타 지부

지난 10월 9일 미네소타 지부에서는 재미한인과학자협회(KSEA)와 공동으로 이력서 작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문회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에 비해서 같이 협력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연사들을 초대하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

학계와 산업계에서 최근에 직장을 시작하신분과 이미 오랜시간을 보내신 총 4분을 동시에 모셔서 최근 동향과 오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점이 비교적 새로운 시도였다.

학계에서는 강경철 (공대 04) 동문이 이미 정년보장을 받으신 교수님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고 미네소타 대학 화공과에 새로 교수로 부임하신 이승환 교수님, Seagate에서 18년간 근무하신 지성훈 박사님, 3M에 2년전에 새로 오신 이원희 박사님께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시고 분야에 따라서 어



학계·산업계의 선배 동문 4명이 학생 동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이력서 작성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 설명하고 있다.

KSEA와 공동으로 이력서 작성 세미나 네트워킹 통한 전문가 추천 중요성 강조

떤점들이 이력서에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학계와 산업계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모든 연사분들의 공통점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킹의 중요성이었다. 성공적인 취업은 일단 이력서가 일

차 스크린을 거쳐서 hiring manager 나 search committee에서 검토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네트워킹을 통한 referral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리 신청한 참석자들과 연사분들이 1대1로 이력서를 검토해주는 시간도 가졌는데 동문 6명을 포함해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이번에는 학계와 산업계 전반을 다루는 이력서 작성에 관한 세미나였고 1월과 4월에는 산업계와 학계에 집중하여 보다 심도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추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문성인(공대 88) 지부 회장



가을 햇살 아래 열린 가족 야유회에서 남가주 동문들이 함께 어울리며 단합의 시간을 갖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 가을 야유회서 열린 구순 잔치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황)가 주최한 가을가족야유회가 지난 9월 27일 부에나파크의 랩프 클락 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행사는 특히 구순(九旬)을 맞은 원로 동문들을 축하하는 특별한 순서로 진행돼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5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행사장에는 ‘가을맞이 동문 가족 대잔치’와 ‘축 구순’ 현수막이 걸리고, 대형 풍선 두 개가 떠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각 테이블에는 과일 애플과 배, 사과 등 제철 과일이 풍성하게 차려졌고, 구순 축하 떡도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구순을 맞은 원로 동문들에게는 축하 난과 함께 홍삼 제품 등 푸짐한 선물꾸러미가 전달됐다.

행사에 앞서 20여 명의 동문들은 김동근(공대 60) 산악대장의 인솔로 왕복 4마일 코스를 함께 걸으며 친목을 다졌다.

이번 구순잔치는 동창회 야유회 사상 처음 마련된 자리였다. 1935년 이전 출생 동문들은 학번에 관계없이 초청됐으며, 모두 11명의 원로 동문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양창효(상대 50) △박호현(의대 52) △전상욱(사대 52) △강항운(농생대 52) △김택수(사대 52) △박원준(공대 53) △이기준(법대 54) △정인환(법대 54) △차종환(사대 54) △장윤희(사대 54) △임동호(약대 55) 동문 등이다.

미주동창회 초대회장을 지낸 박윤수(문리대 48) 박사는 참석 의사를 밝혔



구순잔치상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원로 동문들. '구순 축하' 배너와 대형 풍선이 걸린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원로 동문 11명 참석, 후배들 축하 인사 받아 올 야유회 역대 최다 350여명 동문가족 참석 후원금 답지, 동창회비로만 5300달러 모금

으나,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유준석(공대 52) 동문도 건강을 이유로 현장에 오지 못했다. 동창회가 파악한 최고령 동문은 올해 백수를 맞은 홍석관(사대 46) 동문이다.

채규황(법대 69)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더욱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꼭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진(간호대 80) 차기 회장은 “올해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이전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관악세대 갈라’에도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번 야유회에는 젊은 관악세대 동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갈비와 바비큐 코너는 신경섭(자연대 91) 동문을 비롯한 관악세대가 맡아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

또한 많은 동문들이 후원금으로 행사를 지원했다. 전상욱, 정군희, 박종수, 한귀희, 박해주, 김병완, 김선기, 김성환 동문 등이 총 4,100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날 동창회비로만 5,300달러가 모였다.

재무를 맡은 나용화(생과대 78) 동문은 “당일 순이익이 3,000달러를 넘어, 야유회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히 큰 박수를 받았다.



(왼쪽부터) 채규황(법대 69) 총동창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갈비를 굽고 있는 관악세대 동문들. 팜방울 속에 웃음이 번지며 행사장에 열기가 더해졌다. 양수진(간호대 80, 왼쪽) 차기 회장이 신경섭(자연대 91) 동문과 함께 갈비 박스를 나르며 행사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샌디에고 지부, 박윤정 동문 자택서 미술 강좌 행사

동문 가족 45명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동문들은 탁트인 전망과 어울어지는 야외 조각 작품들, 세련된 실내 작품들, 그리고 박윤정 동문의 열정이 느껴지는 공방에서 창작자의 설명과 함께 미술관 투어와도 같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윤정 동문은 응용미술학과와 대학원을 마친 후 도미해 UC 버클리 대학원을 졸업했고 샌디에고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에가이자 조각가다. 오랜기간 샌디에고 시티 칼리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샌디에고미술가협회(COVA) 예술감독을 비롯해 샌디에고공예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100여회의 전시회를 열었고 캘리포니아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 테네시주립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서울대학교 현대미술관 등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박윤정 동문 자택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샌디에고 동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지난 9월 27일 토요일 저녁, 박윤정(미대 62) 동문 자택에서 동문 가족을 위한 미술 강좌가 열렸다. 너무나 좋은 날씨와 석양 속에

탁 트인 석양 아래 미술과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



(왼쪽부터) 박윤정 동문 자택으로 들어가는 길에 설치된 야외 조각 작품들. 샌디에고 동창회에는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도 90학번대 동문 10명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고 2000년대 학번 3명 중 가장 어린 후배로 공대 2013학번 도하림 동문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석양이 지는 가운데 박상호 지부 회장의 소개로 시작된 박윤정 동문의 미술 강좌에서는 거대한 스케일이 인상적인 Christo and Jeanne-Claude 로 시작해서, 색감과 반사 질감이 특징적인 Anish Kappor, 집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준 서도호 작가에 대한 강좌가 이어졌다. 특히 서도호 작가는 UCSD Fallen Star의 작가이면서 박윤정 선배님과도 인연이 있어 인상 깊었다. 박윤정 동문(왼쪽)은 이날 공방을 둘러본 후배들에게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해줬다. 동문들은 시원한 바람, 빛나는 별과 함께했던 야외에서의 미술강좌가 한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글=이원익(공대 94)

동문·가족 17명, 화창한 가을 날씨 즐기며 골프 대회

미시간 지부

에 소재한 Glen Oaks Golf Course에서 열렸다. 17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하여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즐겁게 치렀다.

경기 후 열린 시상식에는 고선희(문리대 63), 유경은(간호대 62) 동문이 참석해 장타상을 받은 정무일(사대 65)

동문 등 수상자들을 축하해줬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 동문들은 가부키 식당에서 저녁모임을 갖고 여러 동창회 현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 특히, 매년 초 열린 설날행사가 날씨가 추워서 참석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돼 2026년에는 설날행사 대신 3월28

일 봄맞이 행사를 갖기로 했다.

고광국(화공 54), 고국화(화공 56) 이사님과 박기완(농대 86), 김미란(농대 88) 동문이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해 담소를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글=이광진(공대 81) 미시간 지부 회장



최명동 동문이 closest to the pin 홀에서 50cm 거리로 샷을 붙인 뒤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화창한 가을 날씨를 즐기며 골프대회를 한 미시간 동문들.



북가주 지부의 하이킹 그룹 '진판델 하이킹'이 출범 12주년을 맞아 이를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지난 10월18일 축하자리에 함께 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진판델 하이킹’ 창립 12주년 “앞으로 더욱 열심히 걷자”

북가주 지부

10월 18일 동문 30여명 모여 축하 모임
매주 함께 걸으며 친목·건강 챙겨

북가주 지역에서 매우 활발히 운영되는 하이킹 그룹 ‘진판델 하이킹 (Zinfandel Hiking)’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동문 30여명이 모여 이를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진판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와인 동호회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2013년 10월 하이킹 동호회가 만들어진 후 처음 시작한 하이킹 트레일의 이름이 진판델이어서 그 이름을 따 ‘진판델 하이킹’으로 지었다.

우리는 2013년 10월 첫 하이킹을 시작한 이래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늘 토요일 오전에 모여 함께 걷고 하이킹 후에는 간식, 혹은 점심을 함께 하며 동문들의 안부와 각종 정보들을 교환하는 모임을 해왔다. 코로나 시절에는 함께 걸을 수는 없었지만 줌 미팅으로 만나 모임을 계속했다. 창립 12주년을 기념한 지난 10월 18일에도 하이킹을 한 후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북가주 동문회에서 명실상부 가장 활발한 동호회이자 가족 같은 정을 나누는 모임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가끔 샌프란시스코나 하프문 베이 등 근교의 다른 지역으로도 하이킹을 가거나 하면 애리조나 세도나 지역으로 단체 관광도 다녀 왔다. 구성 인원은 90세가 훌쩍 넘으신 49학년 동문부터 84학년 동문까지 다양

하다. 연령대 만큼이나 회원들의 취미도 다양해 하모니카를 불며 여흥을 즐기는가 하면 전기 회로 도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 및 여행지 도서를 가져와 서로 돌려보며 읽기도 한다. 지난 12년을 돌아보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진판델 하이킹을 함께 하며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소회도 든다. 12주년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회원들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걸어 건강히 살자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글=최승희(사회대 81) 편집위원



하트랜드 지부 '동문의 밤' 행사 'SNUAA Got Talent!'에서 장기자랑을 한 동문과 그 자녀들. (왼쪽부터) 전찬우 동문의 둘째가 귀여운 돌잡이 이벤트를 펼쳤다. 노정희 동문 부부는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부르며 율동을 선보였고 김경운 동문의 아들과 딸은 태권도 품새를 자랑했다.

동문과 자녀들 장기자랑 빛난 ‘SNUAA Got Talent!’

하트랜드 지부

2025 연례 총회 겸 동문의 밤 ‘뜻깊은 시간’
호민선 동문의 수필 ‘정’ 낭독, 영예의 1등

지난 10월 19일(토), 서울대동문회 하트랜드 지부의 연례 총회 및 동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동문회 활동을 돌아보며 동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재능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총회는 구명순 이사장(간호대 66)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이주현 회장(미대 92)의 사업보고, 김경운 총무(사범대 00)의 재무보고, 노정희 감사(음대 86)의 감사보고, 이치현 장학위원장(약대 77)의 장학생 선발 보고에 이은 안건 토의로 이어졌다. 하트랜드 지부는 매년 2~4명의 장학

생을 선발하는데 올해는 두 명의 학생이 선정되어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저녁식사에 이은 ‘동문의 밤’ 행사는 최지웅 동문(공대 95)이 ‘숨쉬는 폐’에 대한 강연을 했고, ‘SNUAA Got Talent!’ 프로그램을 통해 동문과 가족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차명성 명예동문(미국 분인대 한국에서 약 50년 전에 Peace Corp로 봉사하셨고,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름을 지었다고 함)의 ‘나의 한국 이야기’

로 시작된 무대는 진찬우 동문(사회과 학대 07) 아들의 돌잡이 이벤트, 임소연 동문(음대 91) 막내의 피아노 연주, 김경운 동문 자녀들의 태권도 품새, 장영준 동문(농대 83) 자녀들의 바이올린 듀엣, 노정희 동문(음대 86) 부부의 율동과 노래로 웃음을 더했다. 특히, 호민선 선배님(상대 59)이 낭독한 차귀동의 수필 ‘정’은 깊은 울림을 주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이번 ‘SNUAA Got Talent!’ 경연에서 영예의 1등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동문 간의 유대감을 강



수필을 낭독한 호민선(왼쪽) 동문이 구명순 이사장으로부터 1등상을 받고 있다.

화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하트랜드 지부는 앞으로도 SNUAA는 동문들의 소통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글=이주현(미대 92) 지부 회장



뉴잉글랜드 동문회가 지난 9월27일 보스톤의 크리스찬 허터파크에서 가을 야유회를 열고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58학번부터 2020학번까지 60여년 차 동문들 한자리

뉴잉글랜드 지부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가 지난 9월 27일 토요일 보스톤의 크리스찬 허터파크에서 2025년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8학번부터 2020학번까지 60여년에 걸친 동문들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가을 야유회 열고 친목 다져
조별 모임 통해 선후배 대화

행사에서는 준비된 다양한 종류의 김밥과 떡볶이, 바비큐와 떡 등 음식을 함께 나누며 처음 만나는 동문들도 금세 친밀해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졌으며, 무작위로 조를 나눠 네트

워킹 시간을 가졌다. 선후배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조에 합류해 세대 간 교류와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조별 모임에서는 보스톤에 오래 거주한 선배들이 예전의 추웠던 보스톤 생활을 회상하는 한편, 새로 정착한 유학생 후배들은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세대를 넘어 공감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원덕수 회장은 “젊은 동문들의 교동편의를 위해 신년맞이 모임도 보스

톤 또는 케임브리지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오늘 야유회처럼 시간과 경비, 자원을 절약하며 모든 동문들이 ‘Symbiotically, Synergetically’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 참석을 희망하는 동문은 원덕수 회장(douglasdwohn@gmail.com)이나 관악회 정해원 회장(emilo83@g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가을 음악회와 이사회 ... 차차기 회장에 윤봉수 동문

시카고 지부

이소정 동문, 음악회 총지휘
12월 총회서 장학금 수여식

깊어가는 시카고의 가을밤,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시카고 한인 문화원을 가득 채우며 제2차 이사회와 겸한 가을 음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10월14일 열린 올해 음악회는 동창회의 주요 활동 무대이자, 동문 선배들의 기여로 설립된 시카고 한인 문화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하였다. 문화원의 훌륭한 그랜드피아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음악회 총지휘를 맡은 이소정 교수(음대 84)는 프로그램을 피아노 명곡 위주로 구성하며 공연의 격을 높였다.

무대를 빛낸 젊은 연주자는 김수경, 하동완, 주혜진, 이충호 동문 네 명이였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 수상과 활발한 국제 무대 활동, 후학 양성에 힘쓰는 이들의 여정은 서울대 음악대학의 저력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였다.

바흐, 베토벤, 쇼팽, 리스트, 라벨 등 거장들의 명곡이 문화원 비스코 홀을 가득 채우는 순간, 참석자들은 음악이 주는 위로와 용기를 함께 나누었다.

김현희 (간호대 68) 동문은 “라이브 연주를 듣게 되어 영광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다. 차차기 회장으로 인준된 윤봉수 (간호대 69) 동문은 “훌륭한 연주였으며, 더 많은 분



지난 10월14일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열린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이사회에 모인 동문들.

들이 함께하지 못하여 아쉽다. 뛰어난 후배 연주자를 초청하여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대를 잇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음악의 힘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차세대를 격려하며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나누는 것은 동창회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행사 기획과 무대 운영에 헌신한 이소정 동문과 실행 임원진,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한편, 음악회가 끝난 후 이어진 제2차 이사회에는 많은 이사들이 꾸준히 참석하여 동창회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주요 안건 보고와 인준은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정성일 회장(공대 86)이 2025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하고 인준을 받았다.

한의일(공대 62)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장학생 선발 규모(약 10명, 1인당 \$3,000)를 결정하고, 공지 및 접수 마감, 심사를 거쳐 10명 선발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



이사회에 앞서 열린 가을 음악회에 참석한 동문들. 이날 김수경, 하동완, 주혜진, 이충호 등 젊은 동문 연주자들이 피아노 명곡을 들려줬다

장학기금 현황을 보고하며, 기금의 수익으로 매년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차차기 회장 추천 및 인준 안건에서는 차차기 회장 인선위원장인 조규승 전임회장(문리대 72)이 참석하지 못해 황치룡 인선위원(문리대 65)의 추천으로 윤봉수 동문(간호대 69)이 인준되었다. 이어서 골든클럽, 관악클

럽, 동아리, 세종문화회, 시카고 한인 문화원 등 주요 활동 그룹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동문들의 활발한 교류를 독려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시카고 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동문들의 유대감을 깊게 다지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글=정성일 (공대 86) 지부 회장
사진=소진문 (치대 58)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홈커밍데이 다음날인 20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강남의 삼익악기 본사로 미주 동문들을 초청해 환영 만찬과 음악회를 열었다. 환영 만찬에 참석한 동문들.

모교에선 귀빈 대접, 제주도에선 힐링의 시간

10월 1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2025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에 참여하기 위해 미주 동문과 가족 40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주 동문들은 19일 홈커밍데이 행사에 이어 20일에는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주최한 만찬과 음악회에 참석했다. 21일부터는 이길송(상대 57), 한효동(공대 58), 김영덕(법대 58), 김인배(수의대 59), 문소자(음대 60), 고용규(의대 67), 황효숙(사대 65) 미주동창회장과 임동근(농생대학원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등 12명의 동문과 가족이 4박 5일간의 제주 여행을 즐겼다.



미주 동문들을 위해 호암교수회관에서 오찬을 준비한 유홍림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맨왼쪽), 유홍림 총장(가운데),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행사장에 나란히 앉아 있다.



미주동창회는 이번 행사에 최신형 아이폰 에어를, 신응남 15대 미주동창회장은 140만원의 선불 카드를 협찬했다.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행운의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하고 있다.



홈커밍데이 공연을 즐기고 있는 미주 동문들.



본 행사에서는 부채춤, 댄스 퍼포먼스, 밴드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미주 동문들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앞줄에 모여 앉아 있다.



미주 동문들이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준비한 만찬과 음악회를 즐기고 있다.



제주도 천지연 폭포 앞에 선 동문들. 폭포의 길이가 22m, 그 아래 못의 깊이가 20m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도 광지과물해변을 방문한 동문들. 화창한 날이면 몰디브 부럽지 않은 환상적인 물빛을 자랑하는 곳이다.



홍종만 동문(맨 왼쪽)이 4박5일간의 라우가베구르 55km 트레킹 출발에 앞서 등산 동호회 일행들과 포즈를 취했다. 홍 동문 옆은 그의 부인이다.

불과 얼음의 땅 걸으며 대자연의 경이 속으로

홍종만 동문의 아이슬란드 여행기

서울대 뉴욕 골든클럽 회장을 지낸 홍종만(공대 64) 동문이 지난 9월 1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아이슬란드를 다녀왔다. 아이슬란드 여행 중 4박5일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7대 트레킹 코스의 하나인 라우가베구르 트레킹을 즐겼다. 라우가베구르 55km 트레킹은 화산지대, 깊은 협곡, 광활한 용암지대, 빙하, 끊어오르는 온천 등 아이슬란드의 다채로운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이다.

홍종만 동문은 공대 산악부 출신으로 뉴욕 한미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본토 최고봉인 휘트니산과 워싱턴주의 마운트 레이니어, 유럽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과 마테호른, 남미 대륙의 아콩과가산과 알파마요산 등을 원정 등반했다.

9세기 후반, 노르웨이 국왕 하랄 1세의 통치를 피해 이주한 정착민들에 의해 개척된 아이슬란드는 유럽 대륙과 떨어져 있지만, 역사와 문화적으로 유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서 국경 검사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경제에서 어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EU의 공동 어업 정책에 따른 어업자원 통제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수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40%에 달해 알루미늄과 함께 국가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며, 그 중에서도 대구는 단일 어종으로 가장 높은 수출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만 명 인구의 70%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수도, 레이카비크에 거주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육박하는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이슬란드 남동부 고원지대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라우가베구르 55km 트레킹 코스를 4박 5일간 완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장(hut)을 거점으로 삼아 걷는 'hut-to-hut' 방식으로 진행된 트레킹. 처음 이들은 곳은 비를 맞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인 바트나요쿨 빙하 앞에 선 홍종만 동문(맨 오른쪽). 요쿨 살론 빙하 호수에는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들이 떠다닌다. 오른쪽 사진은 스카이 라군 온천장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일몰 풍경.

빙하·화산·폭포를 잇는 트레커들의 성지 라우가베구르 55km 코스 4박5일간 완주

바다와 이어진 듯한 풀에서 마주한 일몰 자연의 위대함 다시 깨닫는 소중한 시간

견느라 바지와 양말까지 다 찢어 산장에 도착해 옷을 말리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곧 맑은 날씨를 되찾아 아이슬란드 고원지대의 장엄한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원지대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이끼만 무성하여 초록색 구름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의 증거로 여기저기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때로는 검은색 화산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황량한 불모지대를 지나기도 하고, 빙하의 하단을 가로지르거나 무릎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여러 번 건너는 등 자연 그대로의 낯것을 온몸으로 경험했

습니다.

5일간의 트레킹을 마치고 레이카비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다음 날, 해안도로를 따라 골든서클 지역을 관광했습니다. 옐로스톤에서 보았던 간헐천처럼 힘차게 뿜어내는 게이시르, 황금 폭포라는 뜻으로 두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굴포스 폭포를 보며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지닌 경이로운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바다와 이어진 듯한 인피니티 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군 온천장, 쏟아져 내려오는 물기둥 뒤편으로 걸어들어갈 수 있는 셀라란드스포스 폭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지구온난화에도 불구하고 빙하가 아이슬란드 국토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인 바트나요쿨(Vatnajökull)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들이 떠다니는 요쿨 살론 빙하 호수와, 떠내려온 얼음 조각들이 검은 모래사장처럼 보석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해변을 끝으로 1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아이슬란드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는 훨씬 더 밝고 또렷해 마치 오로라가 대지와 호흡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오른쪽 사진은 스카이 라군 온천장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일몰 풍경.

‘도덕경’과 ‘파친코’ 읽으며 인간과 사회를 성찰하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제9차 정기 발표회

당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서울대 권장 100선 도서의 하나인 노자의 『도덕경』과 몇 년 전 선풍적 인기를 얻은 이민 1.5세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다루었다. 『도덕경』은 BC 6세기 노자가 남긴 글이라 전해진다. 한자로 5,000자 남짓, 200자 원고지로 25매 정도이며 81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9차 서울대 뉴욕 북클럽(대표 신응남 · 15대 미주동창회장) 정기 발표회가 지난 9월 25일 뉴욕 베이사이드 소재 거성식

『도덕경』 제1장의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명 비상명(名可名非常名) 무명천지시(無名天地之始) 유명만물지모(有名萬物之母)”는 『도덕경』 전체가 축약된 형이상학적이고 우주적인 깊이를 말해준다.

1940년대에 동양사상을 서양에 크게 소개한 임어당은 동양 문헌 중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했다. 서양의 헤겔이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와 톨스토이가 노자를 읽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많은 서양 지식인들이 『도덕경』을 읽는다.

첫 번째로, 김해암(의대 52) 동문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했다. 김해암 동문은 주로 동·서양의 역사와 문명을 동일성과 차이의 이해와 함께, 21세기의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도덕경』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 사상은 지배 담론인 유가(儒家) 사상과 비판 담론인 노장(老莊) 사상이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가 사상은 서구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문 세계의 창조와 지속적 성장의 ‘진(進)’의 사상이고, 그에 비하여 노자 사상의 핵심은 나아가는 것(進)이 아니라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귀(歸)’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설가의 주장을 전했다.

즉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리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사상 체계를 말하는 노자의 철학적 근본을 설명했다.

둘째 발표자인 이민경(미대 85) 동문은 6~10장의 내용을 요약 발표했다. 이민경 동문은 “『도덕경』에서 도는 여인, 특히 어머니로 상징된다. 도는 딱 찬 실체가 아니라 비어 있으면서도 창조적인 근원이다. 우리가 채우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비움’을 통해 더 큰 가능성을 맞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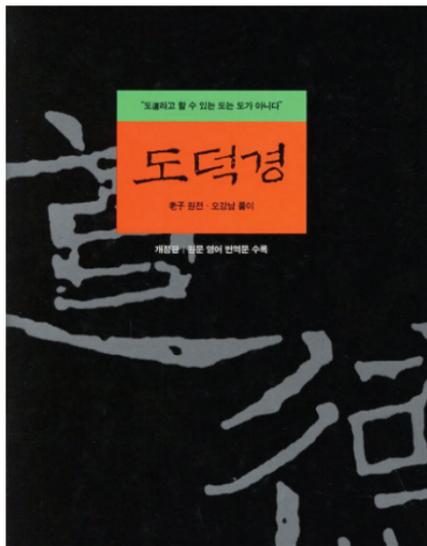
이민경 동문은 이어 “물처럼 되는 것을 최고의 선(上善)으로 삼는다. 유익하지만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무는 태도, 이 ‘물의 덕’이 중심으로 다뤄지며, 삶에서 ‘겸손, 유순, 조화’를 삶의 자세로 보았다”며 ‘과유불급’의 삶을 언급하고 “‘진정한 덕 있는 자는 공을 이루면 스스로 뒤로 물러난다’라는 노자의 가르침에 공감하며 삶의 지표로 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발표는 송웅길(신문대원 69) 동문이 제17~20장을 요약 발표하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와 정부는 백성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다. ‘The least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라고 말할 수 있다. 아는



서울대 뉴욕 북클럽 회원 동문들이 지난 9월 25일 모여 노자의 『도덕경』과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읽었다. 아래 사진은 『도덕경』과 『파친코』 책 표지.



체를 버리면 사람에게 이로우니 백 배나 더할 것이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송웅길 동문은 또한 “살아가는데 융통성과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며, 성인이란 이렇게 ‘반대의 일치’라는 위대한 진리를 통찰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그러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사물을 하나로, 통전적으로(holistically) 파악함으로써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세상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을 마쳤다.

네 번째 발표자인 양근식(음대 82) 동문은 41~42장을 요약 발표했다.

그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는 역설(paradox)’이라고 했다. 역설적 특성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느냐, 아니면 무조건 조소하고 거절하느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저울질되는 것이다. 노자는 ‘강포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는 사실, 자기를 낮추어 겸손함으로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강함을 버리고 부드러움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는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발표는 김병중(미대 84) 동

문이 맡았다.

“큰 도는 매우 평탄한 대로이고, 참된 길은 단순하고 바르지만 지도자가 사치와 권력욕에 빠지면 백성은 가난에 허덕인다. 화려함 속에서 백성이 굶주린다면 이는 다스림이 아니라 도둑질이다. 잘못된 지도자에 의한 한 국가의 안위에 경제가 위태로워진 예는 역사 속에 수많은 국가가 멸망했음을 배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입을 막고 문을 닫으며,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엄함을 풀며, 빛을 조화시키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것을 ‘현묘한 하나 됨’이라 한다. 그러므로 가까이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도 해롭게도 할 수 없고, 귀하게도 천하게도 할 수 없다. 참으로 아는 이는 말로 드러내지 않는다. 검허와 침묵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며, 세상 가치는 평가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다음은 천흥규(상대 84) 동문의 발표로 이어졌다.

“큰 나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통으로 굽듯이 마구 뒤집지 않고 가만 놔두며, 일어나는 자율성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생선이 타게 완전히 내팽개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부모의 역할도 그러하고, 금융투자도 작은 생선을 조리하듯이 다루어야 성공한다. 강의 하류가 고도가 낮아 높은 곳의 물이 스며들듯이 큰 나라는 스스로 낮추어 작은 나라를 얻는다. 작은 나라가 스스로 들어가 큰 나라를 섬기

게 된다. 이는 춘추전국시대의 얘기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트럼프의 미국은 계속 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한 나라에는 죄가 있어도 사람을 내리는 지도자의 덕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특검의 계엄령 관련 내란죄 조사와 재판에 대해 관용성과 포용성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가? 천흥규 동문이 던진 질문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김현진(미대 동양학과 93) 동문이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노력으로 문명의 발전을 견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2장 첫머리에 나오는 ‘知不知上, 不知知病’이라는 문장은 많이 인용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자거나 아테네의 모든 사람이나 모두 무지한데,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어느덧 한 시간여의 발표 시간이 지나, 모두가 기다리는 와인을 곁들인 명품 코스 요리를 나누며 이민진의 『파친코』 작품의 요약을 이어갔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각자의 한계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삶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작가는 4대에 걸친 고통스러운 조선인의 삶을 그렸다.

현대에 와서 제일 외국인들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본 사회에는 아직도 제일 외국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의식이 남아 있다. 어디 일본 뿐이겠는가?

이제는 지구상에서 이민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박해,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받았던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차별의 시간을 지내온 역사가 있다.

이민자의 땅, ‘멜팅 팟’이라고 불리던 미국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반이민자 단속으로 이곳에서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격정과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차별이 존재하는 게 맞는 걸까? 차별 없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는 세상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걸까?

발표를 마치고, 11월 제10차 북클럽 모임에서 다들 책으로 정조 때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병자호란을 다룬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을 함께 읽으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재조명해 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글 = 신응남(농대 70·15대 미주동창회장)

천양곡의 메디컬 단상



천양곡 (의대 63)

영어 Order는 원래 군대 용어다. 상관이 부하에게 “That’s order!” 하면 이유 여하를 따질 수 없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상황에도 따라야 하는 지상 명령이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오더란 단어가 사용된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약물이나 검사, 혹은 시술 등에 대한 지시를 담은 공식 문서가 처방전(Doctor’s order)이다. 상거래 경우는 물건의 주문서로 통한다. 이처럼 오더는 지상 명령은 아닐지라도 될수록 지켜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어느 날 아침, 언뜻 책상 모서리에 쓸쓸히 놓여 있는 빛바랜 처방전에 눈길이 갔다. 현직에 있을 땐 매일매일 챙겨주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처방전은 직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내 신분 중 하나였다. 그땐 신주 모시듯 했는데 이제 찬밥 신세가 되어 한쪽 구석으로 밀려 있다. 미안하고 측은한 생각이 든다.

처방전은(사진 참조)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치료 계획에 대한 문서이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에 관한 증표도 된다. 더불어 간단하고 짧게 적힌 조그만 종이 속에는 환자의 고통 이야기가 녹아 있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섞여 있다.

정신질환은 무슨 검사나 시술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1950년대에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 토라진, 우울증 치료제인 토프나릴 같은 정신성 약물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정신과 의사는 처방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지금은 정신의학의 치료 방향이 정신분석에서 뇌과학으로 변해 거의 모든 정신질환을 약물로 치료하고 있다.

우울과 불안의 주요 증상인 노이로제(신경증)나 망상과 환상 증세의 정신증(Psychosis) 모두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유다. 다른 의학 분야의 의사들은 약물 이외에도 검사나 시술을 많이 처방하지만 주로 약물만을 사용하는 정신과 의사에겐 처방전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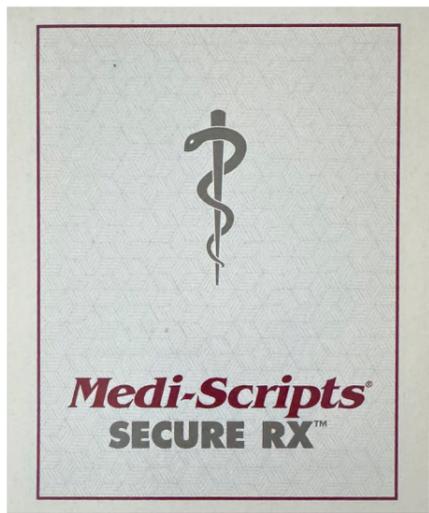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 싫어한다. 통계에 의하면 환자의 2/3 이상이 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예외도 있다. 벨리움(Valium), 자낙스(Xanax), 암페타민 등을 원하는 환자들은 정신과 의사 만나기를 어렸을 적 생일 맞듯 손꼽아 기다린다.

진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신과 약에 의심을 품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적어 내려가는 의사의 손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묻는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그분들의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 동시에 작은 기대의 표정이 엿갈린다.

의사는 조용히 말한다. “약은 당장의 아픔을 덜어주지만 치유의 반은 환자분의 몫이지요.” 의사 말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 환자는 “그렇게 못하니까 의사 만나러 온 것 아니요.” 하고 짜증 내는 경우도 많다.

마음의 병은 신체의 병처럼 딱 들어맞는 약은 드물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는 약물 처방 외에 마음 처방도 함께 내줘야 한다. 말 치료(대화 상담 치료, 어렵게 말하면 정신치료)를 통해 모든



약물에 적용되는 가짜약 효과(Placebo effect)를 꼭 올려주어야 한다.

정신과 약은 신체 질환의 약보다 플라시보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자가 약을 복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 첫 번째다. 그다음 환자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주어야 한다. 마음 처방은 무슨 특별한 이론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 환자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고 공감을 표한 뒤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다다.

“괜찮아요, 환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외롭지요? 누군가가 항상 환자분의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생리학적으로도 뇌 가속성 능력을 올려주어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뇌 통증 회로를 달래줄 수 있게 된다.

의사로 일하던 시절, 진료가 끝나고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나갈 때면 때면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생활하며 겪는 마음의 상처를 약으로만 치유할 수는 없다. 그 상처의 아픔을 오래도록 치유할 최선의 길은 환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삶을 스스로 돌보는 마음이다. 어떤 때는 흘러가는 시간 자체가 마음 고통의 해독제가 될 수도 있겠다.

마음 치료는 약방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어진다. 정신과 의사는 단지 그 길의 방향을 쉽게 찾아주는 표지판 역할을 할 뿐이다. 펜을 내려놓고 귀가 가방을 챙기며 하루의 일을 복습해 보는 습관도 붙었다. “오늘도 참 많은 처방전을 끊었구나. 혹시 심한 약물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 말에 화가 났으면 어쩌지? 그 때문에 자살이라도 하면 큰일인데.”

내가 한 일에 대한 자기 확신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은데 자꾸만 불안이 엄습해 왔다. 환자처럼 나에게도 마음 처방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녹음기의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다. “어이, 천 선생. 그 자존심 조금 풀어주게, 무리한 기대는 내려놓지 그래, 완벽해지려는 강박은 잊어버려, 완벽함은 사람 일이 아니야.”

그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땐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처방 내주기를 바랐다.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다.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의지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려 했다.

삶의 여정은 수많은 처방전의 연속이다. 우리 각자 모두 마음 처방전을 품고 살아간다. 누군가 건네 준 따뜻한 손길, 예상치 못한 위로 편지,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매일의 작은 기도는 삶의 통증을 이겨내는 좋은 약이다. 마음

처방이 글자로 적혀 약방에서 얻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기억 속에 생생한 순간들로 남겨질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이제 의사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야인이 되었다. 책상 모서리에서 빛을 잃어가는 처방전을 다시 뚫어지게 쳐다본다. 눈보다 마음으로 보니 더 밝게 보인다. 처방전도 따라 자연스럽게 야인 처지다. 환자의 손에 이끌려 약국까지 갈 필요도 없다. 처방전은 내 삶의 한 단면이었다.

이제 환자와 연결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 처방전을 어떻게 할까? 누군가 고민 끝에 부치지 못한 편지처럼 쓰레기통에 버릴까, 아니면 땅에 묻어줄까, 둘 다 마땅치 않다. 환자와 나 사이에 지나간 시간을 기념하는 의미가 깃든 처방전이다. 언젠가 종이 조각인 처방전은 없어지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내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다.

“너, 정말 오랫동안 내 환자들의 고통과 마주하며 그 곁에서 있었구나.” 감사의 경례를 붙인다.

“삶의 여정은 수많은 처방전의 연속
우리 모두 마음 처방전 품고 살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 매일의 작은 기도
삶의 통증 이겨내는 가장 좋은 약”

동문 시



이서희 (법대 70)



Torrance Beach, Ocean Breeze America

해질녘 해변에서

그냥 떠나기 서운하여
너의 모습 모래밭에 새겨두고 있구나

화려하지도 않은
수수한 색깔로 채색된 삶속에서

허우적 허우적
걸어온 너일지라도

한여름날의 때약별 같은 청춘의 열기를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겠지

저 하늘은
너의 흔적일 것이며

저 밀려오는 파도는
끝간데 모를 너의 열정을
지우고 또 지우고 있다

박평일 동문의 사색 편지

삶을 살아보겠다'는 작심을 한 후 생겨난 새로운 습관들 중 하나라고 한다. 시를 읽고 난 후에는 그 떨림과 감동을 짧은 메모로 남기고 좋아하는 벗들과 시와 글을 나눈다. 좋아하는 벗들과 좋아하는 시와 글을 나누는 것도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말에는 심심풀이로 써본 글이라며 재미로 읽어보라고 '농담-결혼상담'이라는 글을 보내왔다. 동창회보에 신기에는 좀 긴 분량이다. 하지만 '가질 수 없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성찰로,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고통을 마땅히 그리고 당당히 감수해야 하고, 고통을 받기 싫다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글 같아 소개하기로 했다.

그 여인, 한 손으로 두 마리 새를 잡겠다고...



박평일
(농대 69)

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사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택하면 다른 한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사님, 여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오죽했으면 실존주의 철학자 카뮈가 ‘인간

박평일 동문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간단한 명상과 기도를 끝낸 후 몇 편의 시를 읽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슴 뛰는 시를 읽고 난 후에는 그 떨림과 감동을 짧은 메모로 남기고 좋아하는 벗들과 시와 글을 나눈다. 좋아하는 벗들과 좋아하는 시와 글을 나누는 것도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

“그리고 보니 키에르케고르 주장의 실증적인 예가 되겠네요. 키에르케고르는 결혼의 이중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과의 결혼을 죽음 직전까지 결정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4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요절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사랑이 결혼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글쎄요, 솔직히 꼭 그렇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요. 실제로 사랑으로 결혼을 택한 사람들의 비중이 그리 많지

고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은 농경시대부터 시작된 사회적 관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종족보존과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이전의 수렵시대나 유목민 시대의 모계사회에는 결혼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생각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어느 날 오후였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미모의 중년 부인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독신녀입니다. 제 결혼에 대해서 선생님 고견을 들어보려고요.”

“좀 엉뚱한 분이시군요. 어떤 사연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저는 결혼 상대로 두 남성과 오랫동안 교제해 오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나보다 나이가 젊은 미남형입니다. 성격도 좋고 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결혼 상대로는 너무 가난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한 남성은 나보다 나보다 많은 늙은이입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두 남성 다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끈질기게 청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선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독신으로 잘 살아오시다가 왜 갑자기 결혼을 하시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셨습니까? 보아하니 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혼자서 살기에 경제적 여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 저라고 왜 계속 혼자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축성 예금이나 보험과도 같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노후 안전을 보장해 주는 도구인 보험이나 저축성 예금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군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사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사는 것이 외롭지도 않고, 편리하고 실



은 선택의 자유 앞에서 두려움으로 전율하는 자유에 형벌을 받은 존재'라는 흑평을 했겠습니까. 또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며 선택을 앞에 두고 절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꾼이라서 그런지 역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도 알고 계시네요.”

“이야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얼마 전에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목격했던 해괴한 장면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간수의 안내로 한 병실에 들렀습니다. 한 젊은이가 여자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여자 이름을 불러대며 슬프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기가 너무 애처롭고 민망해서 다음 방으로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에서도 한 젊은이가 여자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동일한 여자의 사진 같았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동일한 여자의 사진 같은데 왜 한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고 있고, 다른 젊은이는 욕설을 퍼붓으며 저주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동일한 여자의 사진이 맞습니다.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앞 방 젊은이는 그 여자에게 실연을 당한 후 상상사병으로 미치게 되었고, 이 방 젊은이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결혼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미치게 되었습니다.”

“딱한 사정이네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할 거라고 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주장이 연상됩니다.”

돈 많은 늙은 남자와 매력 넘치는 젊은 남자

“둘 중 누구와 결혼하면 좋을까요?”

결혼은 부자 노인, 사랑은 젊은 애인이랑?

않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체험하는 느낌이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세상의 모든 음악, 시와 문학, 영화 등 예술작품들의 주제가 사랑으로 범벅되어 있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마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광기를 보이고 있고.”

“예리한 분석이시군요. 인간이란 동물들은 본래가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환상적 탐욕을 가지고 있지요. 예술작품들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들의 내용을 보세요. 그 대부분이 금지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 또는 불륜적 사랑들 일색이지요. 결혼을 통한 건전한 사랑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의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도박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실망과 후회의 그림자가 따르게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그런 그림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위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는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은 개인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습 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너무 과한 편견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인간들의 타고난 본능적 욕구가 아니고요?”

“사랑은 인간들의 타고난 본능이라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사랑을 택한 것 같기도 하고, 안전을 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 당시의 상황이 사랑과 안정을 구분할 수 없어서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가끔은 결혼은 사랑이나 안정과는 관계없는 필연적Happening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드디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탓으로 사랑도 버리지 않고, 안전도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늙은 남자와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젊은 미남 애인과는 사랑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사님의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놀랍습니다. 콩도 먹고 그 알도 먹는 Win-Win 선택을 하시다니. 만약 그런 교묘한 방법이 있을 수만 있다면야 왜 사람들이 그토록 결혼 문제로 고민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태껏 한 손으로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없다고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만약 키에르케고르가 여사님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두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생소한 여인과의 긴 대화였다. 대화가 끝난 후 그 여인은 나에게 ‘고맙다’는 간단한 인사말을 남기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뒤도 다시 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갔다.

그녀는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콩도 먹고 알도 먹는 선택을 결정했는지 모른다. 나는 다만 그녀의 선택을 묵인해 주는 편리한 이방인 도구였었고...

과테말라에 심어지고 있는 서울대 ‘진리의 빛’

〈Veritas Lux Mea〉



김현영
(수의대 58·필라델피아)
GMNET Founder

마야 원주민 마을서 열린 특별한 보건소 헌당식

2024년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면서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철학, 정신, 가치관 등이 나의 인생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쳐 왔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과테말라에서 Veritas Lux Mea 교훈과 직접 연결된 뜻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 5일, 과테말라 북부의 작은 마야 원주민 마을인 아킬(Neuvo Aquil)에서 특별한 보건소 헌당식이 열렸습니다. 현지 대학 총장과 주정부 보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보건소는 단순한 의료 시설을 넘어, 마야 공동체의 삶 속에 진리의 빛을 심고 생명을 돌보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날의 헌당식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교훈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밝히는 빛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는 국가 기관이나 대형 NGO가 아닌, 미주 한인 이민자 중심의 소규모 선교 공동체인 과테말라 선교단(GMNET)이 주관 건축되었습니다.

건축의 시작은 GMNET의 의료 선교를 이끌고 계신 강창석 의료 선교사님의 씨앗 기금 헌금(\$10,000)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GMNET 대표 장학근 선교사님의 리더십으로,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를 비롯한 HOMA, 현지 국립대학(CUNOR), 꼬반 시정부, 아킬 마을 등 여러 기관들이 재정, 기술, 노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보건소 건물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GMNET 헌신의 흔적 기념판에 새겨지다

헌당식에서는 GMNET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판(Plaque)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GMNET의 창립자로서 저희 부부의 사진과 이름이 ‘Honor’ 라는 고귀한 단어와 함께 기념판에 새겨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테말라는 중남미에서 마야 원주민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며, 고지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야는 한때 수학과 천문학, 정교한



김현영 동문이 창립한 GMNET 주관으로 과테말라 북부 마야 원주민 마을 아킬에서 열린 보건소 헌당식(위 사진). 아래 사진은 원주민은 물론 현지 주요 인사들이 헌당식에 참석해 보건소 건립을 기뻐하는 모습.

달력 등 세계적인 문명국이었으나, 오늘날 그 후손들은 대부분 전통적 농업 방식에 의존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고, 빈곤하며 교육의 부족, 보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의사 연구관 은퇴 후 과테말라서 선교 시작

필자가 과테말라 선교를 시작한 것은 2006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수의병리 연구소에서 33년간 수의사 연구관으로 봉직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다소 이르게 은퇴케 하시고 과테말라로 보내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PGM에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과테말라 산카를로스 국립대학교 초빙교수로 부름을 받으면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GMNET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그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GMNET 선교단 7명 중 3명이 서울대 동문들

GMNET은 미국에서 유학과 이민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낸 한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그 꿈을 넘어 ‘킹덤 드림’을 향해 나아가는 미

주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입니다. 이 선교단은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3명은 미대, 수의대, 의대를 나온 서울대 동문들입니다.

이들은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재건된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빛을 제3세계 이웃에게 되갚고자 하는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GMNET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 깨끗한 물, 교육, 의료와 같은 인간의 기본 필수 자원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며, 복음의 빛이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는 총체적 선교입니다.

GMNET은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총체적 선교를 실천합니다. 성경 교육, 의료 사역, 어린이 및 대학생 사역, 직업 사역, 지역 개발 사역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그들의 영적·사회적·경제적 삶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변혁(Transformation)을 추구합니다.

이번 보건소의 건립은 그 결실 중 하나로, GMNET의 비전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3중 사역 따르며 한국 새마을 정신 실천

GMNET은 예수님의 3중 사역(Tea-

ching, Preaching, Healing)을 따르고 동시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GMNET 주선으로 한국 정부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새마을 훈련을 받은 과테말라 국립대학 교수 두 명이 GMNET의 동역자로서 함께 마야 공동체에 새마을 정신을 접목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필자는 자주 한국의 발전 과정을 나누며 한국을 모델로 삼을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근대 발전에 기여한 서울대 Veritas Lux Mea

필자는 2024년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의 참여와 2025년 과테말라 보건소 건립을 계기로 한국 근대 발전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서울대의 교훈인 ‘진리가 나의 빛(Veritas Lux Mea)’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새롭게 형성된 대한민국이 나아가 갈 방향과 비전,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진리’를 ‘빛’으로 표현한 이 교훈은 성경 요한복음 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와 깊은 연결을 갖습니다.

또한 서울대가 ‘Veritas Lux Mea’를 교훈으로 삼은 것은 Havard대학을 위시해 서구 명문 대학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진리와 빛의 개념을 본받은 것이며 동시에, 진리와 지식, 교육,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가 새로운 문명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주로 서울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 젊은 이들의 많은 미국 유학은 한국의 근대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라 보겠습니다.

필자가 과테말라에서 터를 닦고 그 위에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GMNET의 정신은 성경 말씀에서 근원되었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서울대 교훈인 “Veritas Lux Mea”의 정신이 깃들여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Veritas Lux Mea’ 로고를 교복, 교모, 또는 뱃지에 달고 그 정신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특히 연건동 수의과대학 재학 시절, 캐나다 출신 선교사이자 수의병리학자인 스킵필드(Schofield) 박사로부터 선진국의 수의학뿐 아니라 기독교적 박애정신을 배웠습니다. 학문적 교육을 넘어,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Veritas Lux Mea’는 제 인생의 깊은 뿌리가 되었고, 지금도 GMNET의 일원으로 과테말라 땅에 그 진리의 빛을 심고 있습니다. 모교 서울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빛이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학천(치대 71)

파리 신드롬, 서울 신드롬

중년의 미국인 풀은 아내의 자살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던 중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프랑스 여성 잔느와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단지 본능만을 전제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잔느는 점점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되면서 관계를 끝내려 한다. 그러자 풀은 익명 뒤에 벗어나 진심을 털어놓으며 사랑을 고백하지만 잔느는 거부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마지막에 풀은 잔느를 찾아가지만 그녀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를 총으로 쏘고 막을 내리게 된다. 1972년 출시되었던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다.

이 영화는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 오직 본능만 충실한 두 남녀의 파괴적인 관계를 통해 인간의 공허함과 고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낭만적인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비극적인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파리의 관능과 예술이 공존하는 환상의 공

간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느강변의 우아한 건물들이라든가 석양에 물든 몽마르뜨 속에서 펼쳐지는 걱정적 사랑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파리 신드롬’이 세계적으로 퍼졌다.

현대 이런 특정 도시에 대한 환상과 열기는 파리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도시가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세기 영국 귀족들의 ‘이탈리아 증후군’

이나 20세기 초 미국인들의 ‘런던 병’처럼 이상향으로 여겨진 도시의 현실에 충격받는 일은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의 ‘파리 신드롬’은 무척 달랐다. 당시 경제 성장기를 맞은 일본 사회에서 이런 파리의 이미지는 억압된 감정의 해방구로 여겨졌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환상을 품고 파리 동경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봄날 햇살 아래 우아한 카페에서 철학 담론을 나누는 지성인들의 도시, 샤넬 수트를 입은 여성들이 세느강변을 산책하는 로



맨틱한 공간으로 각인된 파리...

그러나 실제로 가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소매치기, 불친절, 쓰레기로 가득한 파리의 모습은 ‘천절’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와 충돌했고 이는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의학

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일부는 불안,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을 겪게 되자 프랑스 주재 일본대사관은 이들을 위해 긴급 의료 지원까지 제공해야 할 정도였다.

이렇듯 파리 신드롬의 실체가 알려지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이 파리 신드롬은 미디어가 만든 환상이 현실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재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최근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울병(Seoul Syndrome)’이 화제다. 일본의 파리 신드롬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을 방

문한 중국인들이 그 매력에 빠져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을 그리워하며 재방문을 갈망하는 현상이다.

이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접한 세련되고 훌륭한 서울의 이미지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현대 이들은 파리 신드롬과 같은 ‘충격과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동경과 모방’에 더 가깝다는 진단이다. 지리적으로도 2-3시간 거리에 근접해, 환상보다는 현실적 애착이 형성되고,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통분모로 극심한 문화충격 대신 친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서울병’은 단순히 현실과 환상의 괴리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을 넘어, 현실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비극적 결말을 통해 사랑의 환상을 깨뜨렸듯, 파리 신드롬이 낭만의 환상을 드러냈다면 서울병은 새로운 형태의 동경을 보여주며 도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깊은 사유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그 열망이 미디어가 만든 환상에 기반하면 파리 신드롬 같은 충격이 되고, 현실적 이해와 경험에 기반하면 서울병 같은 아름다운 그리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노베루’상과 브로큰 잉글리시의 품격

“나이가 먹으니 일본말도 영어도 어눌해지네요. 제 ‘브로큰 잉글리시’를 용서하세요.”

계면적은 미소와 함께 던진 한마디에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누군가 ‘수키! 수키!’를 외치자 환호가 이어졌다. 서툰 영어조차 개의치 않겠다는 여유의 몸짓이었다.

연사는 프린스턴대학의 슈쿠로 ‘수키’ 마나베 교수,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다. 당시 그는 90세였다. 미국에서 60년 넘게 살았는데도 그의 말투에는 일본식 억양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억양 속엔 평생을 한 길로 걸어온 학자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프린스턴대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그의 제자가 나서 스승의 업적을 소개했다. “수키의 가장 큰 강점은 끝없는 ‘호기심(curiosity)’입니다.”

학술모임이 열릴 때마다 그의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다. 맨 앞줄, 오른쪽 끝. 발표가 끝나면 그는 특유의 ‘브로큰 잉글리시’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은 폭포수처럼 이어졌고, 주변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호기심이 해소될 때까지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동료 교수와 학생들은 그를 ‘수키’로 불렀다. 그 호칭엔 존경과 친근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나베는 도쿄대학에서 기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1950년대 일본에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같은 화두는 주목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진대 연구 지원은커녕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1958년 즈음,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미국의 국립해양 대기청(NOAA)에 이력서를 넣었다. 놀랍게도 미국은 ‘적성국’ 일본의 젊은 학자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연구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의 호기심이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는 이곳에서 기후의 물리적 모델을 통해 지구온난화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인류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일본 교도통



신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의 질문은 꽤 도발적이었다.

“마나베 상은 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됐습니까?” 그 어조엔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마나베는 특유의 ‘유창한 브로큰 잉글리시’로 또렷이 답했다.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예스’라고 말해도, 그건 꼭 ‘예스’를 뜻하지 않습니다. 종종 ‘노’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에서의 삶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연구자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한번도 연구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매니지먼트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연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강렬했다. 그것은 일본의 예의와 절제가 아닌, 사유와 자유의 언어였다.

매년 10월이면 노벨상 시즌이 돌아온다. 올해도 과학 분야의 수상자는 대부분 미국 연구자들이었다. 왜 그럴까. 답은 이미 마나베의 고백 속에 들어 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고 싶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것이 미국 과학을 떠받치는 힘이자, 마나베가 선택한 ‘미국인’으로서의 삶의 이유였다.

90세의 노학자는 서툰 영어로 인류의 미래를 말했다. 그의 브로큰 잉글리시는 문법의 결함이 아니라, 자유의 언어로 완성된 또 하나의 문장이었다.

미스코리아 첫 才 ... 펜싱 무대로 차별화했죠

봉사·전공 경험이 만든 인재 연예인보다 교수되는 게 목표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무대였어요.”
올해 미스코리아 ‘재(才)’ 부문 무대에서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이서현(동양화23·사진) 학생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눈앞에서 현실로 완성되는 장면을 마주했다. 그림과 학업에 몰두하던 일상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 도전하기까지,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단단했다. 차분하고 맑은 눈빛을 지닌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말했다.
9월 24일 관악캠퍼스에서 학업과 예술, 그리고 용기 있는 도전을 동시에 꾀안으며 빛나는 성취를 이룬 이서현 학생을 만나, 그 여정과 앞으로 펼쳐갈 꿈에 대해 들어봤다.
그의 도전은 충동이 아니었다. “4살 때부터 막연히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었다”며 “어른들이 농담처럼 ‘나중에 나가보라’고 하신 말씀이 어린 마음에 각인되었고, 그것이 평생의 꿈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마침내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그는 “상상만 하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 신기했다”고 말했다.
최종 무대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Top24에서 Top10으로, 그리고 다섯 명의 당선자가 차례로 불렸다. ‘탑텐에 들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던 심장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비로소 안도와 환희로 바뀌었다. 그는 도전을 부모님 외에는 거의 알리지 않았다. 펜싱부와 가까운 몇 명의 친구에게만 털어놓고, 그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했다. 혹시 실패할까 봐 주저했던 마음을 숨긴 채, 묵묵히 꿈에 다가갔다.
“그림 그리고 공부만 하던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온 그에게 미스코리아 무대는 낯선 영역이었다. 워킹, 스피치, 퍼스널 브랜딩까지 전혀 새로

운 영역을 익혀야 했다. 특기는 ‘펜싱’으로 정했다. 무대 구성과 동작, 음악까지 펜싱부 동료들과 함께 연출해 한 편의 퍼포먼스로 완성했다. 대다수 후보자가 노래나 춤을 선보이는 사이, 그는 펜싱복을 입고 음악에 맞춘 펜싱 시연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부원들이 무대 구성과 음악 연출까지 도와줘서 무대를 완성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무대에 서기 직전까지도 긴장은 극심했지만, 간절함이 그를 버티게 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보이는 건 늘 부끄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스코리아라는 꿈이 있었기에 끝내 무대에서 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죠. 떨리더라도 무대에 오르면 반드시 저를 보여주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무대에 선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그 다짐은 실제로 PR·발표 상황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할 때는 해야 한다”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됐다.
그가 수상한 ‘재(才)’ 부문은 올해 처음 신설된 영역이다. 예술적 재능과 창의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찾기 위한 자리다.
그는 “동양화를 전공하고 벤처경영을 복수 전공하며 예술과 학문을 함께 탐구한 점이 취지와 잘 맞았다”며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다채로

운 경험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봉사단 임원, 해외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 역시 ‘지덕체’를 갖춘 후보자로 비치는 데 큰 힘이 됐다.
서울대에서의 시간은 그의 도전을 지탱한 밑거름이었다. 그는 이화여대 재학 시절 ROTC 과정에 참여했으나 반수 끝에 서울대로 진학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모교에서 학업과 동아리를 병행하며 성장의 기회를 넓혀 갔다. 한 전공에 머무르지 않고 조경·의류·영상예술매체 등을 탐색한 끝에 벤처경영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
그는 “하나의 길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시도를 통해 저를 다채롭게 만들

고 싶었다”며 “그런 경험들이 무대에서도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회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은 고된 여정이었다. 여름 방학 동안 그는 근로 장학, 계절 학기, 합숙 훈련, 미스코리아 일정을 동시에 소화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 수업과 근로 장학, 금·토·일은 미스코리아 일정이 이어졌어요.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이 꽉 차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틴 끝에 계절학기 성적도 잘 나오고 미스코리아까지 당선돼 뿌듯해요.”
그의 말에는 스스로 선택한 도전을 끝까지 밀어붙인 뿌듯함이 배어 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엔 버틸 수 있었다”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도 분명하다. 그는 “연예계 활동은 전혀 생각이 없다. 공부를 계속 이어가 교수로 성장하고 싶다”며 “예술과 경영을 접목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예술과 대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함에 있어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은 분명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 “찬란함”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 더 많은 도전을 하며 채워가려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전공을 공부하며 미스코리아라는 꿈도 이뤘다”며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스코리아 대회는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방식도 달라졌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MBC에서 송출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국일보의 후원 아래 글로벌 E&B가 주최를 맡는다. 또한, 외모 중심 평가와 수영복 심사가 상징적이던 시절에서 벗어나, 현재는 수영복 심사가 폐지되고 참가자의 개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중시하는 콘텐츠 중심의 현대적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정운 기자



총동창회 차기 회장·감사 선출 위한 회장추대위 구성

임현진 위원장 선출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9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1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제1차 회장추대위원회를 열고 추대위원장으로 임현진(사회67)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

출했다. 부위원장은 조순용(동양사71)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선임됐다.
김종섭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총동창회는 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총동창회 회장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재임 할 수 있다. 김종섭 회장은 2024년 연임해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회장추대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12명, 모교 총장 지명 3명, 대학·대학원동창회장들이 상호 선출하는 당연직 부회장 12명으로 구성된다.
회장추대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모집을 공고 게시중이다. 11월 3~14일 회장 및 감사 예비후보자 접수, 12월 18일 2차 추대위원회 회의를 거쳐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는 내년 3월 12일 상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임현진 위원장은 “좋은 회장을 모시는 것은 모교 발전뿐 아니라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갖춘 리더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683,000 (as of 10.25.2025)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뉴욕-조상근 (법대69)
-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57)
-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허지영 (문리 66)

골드이사 (\$10,000 이상)

-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김일영 (의대65)
-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박종수 (수의 58)
-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 네바다-정상진 (상대 59)
-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 뉴욕-오인석 (법대 58)
-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전혜경 (문리 67)

- 샌디에고-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 시카고-조규승 (문리 72)
-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손재옥 (가정77)
-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 이상)

- 남가주- 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 뉴욕-김현중 (공대 63)
- 미네소타-황호숙 (사대 65)
-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 DC-남욱현 (경영대 84)
- 워싱턴DC-배성호 (의대 65)
- 워싱턴DC-최재귀 (미대 63)
-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임수임 (공대 62)

종신이사 (\$3,000 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나용화 (생과대 79)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신건호 (법대 53)
- 신경자 (사대 60)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균희 (의대 64)
- 정희영 (치대 56)
- 정동구 (공대 57)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한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효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종화 (약대 74)
- 황해룡 (공대 52)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故김종률 (사대 51)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오용허 (의대 66)
- 윤인숙 (간호대 63)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일 (사대 53)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최형무 (법대 69)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 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흥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휘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대65)
- 이윤주 (상대 63)
- 최지원 (의대 61)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문성인 (공대 88)
- 박현아 (공대 88)
- 변우진 (인문대 81)
- 송창원 (문리대53)
- 조형준 (문리대 62)
-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 박종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옥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황동하 (의대 65)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유현주 (문리대 65)
- 진성호 (공대 64)

시카고

- 故이윤모 (농대 57)
- 강여국 (수의대 67)
- 소진문 (치대 58)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대 78)
- 이은상 (상대 52)

오하이오

- 김용현 (경영 66)
-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헌민 (공대 84)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성성모 (사대67)
-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중민 (공대 64)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하틀랜드

- 故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상순 (상67) 김수영 (사57)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박인수 (농64) 박호현 (의52) 벤자민홍 (문53) 손학식 (공61) 신건호 (법53)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 63) 윤석철 (상60)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서희 (법70)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채진 (문55) 장윤희 (사54) 장원경 (미73) 정등주 (생72) 정명자 (사56) 정 황 (공64) 주정래 (상65) 천두우 (공63) 채규환 (법69) 한홍택 (공60) 함승욱 (간호73) 홍선례 (음70) 황건홍 (공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애자 (음57) 김윤희 (간71) 권정덕 (의58)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정희 (간69) 김종원 (사58)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서병선 (음65) 선종철 (의57)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재원 (상58) 조남천 (사59)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형무 (법69) 허영자 (약63) 뉴잉글랜드 김형범 (문57) 박종건 (의56) 윤영자 (미60) 미네소타 주한수 (수의62) 황효숙 (사65) 미시간 하계현 (공64) 북가주 강재호 (상57)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신규영 (공64)	전병련 (공54) 정춘임 (간67) 위창호 (의67) 최경선 (농65) 홍병익 (공68) 황등하 (의65) 황만익 (사59)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최희기 (공61) 샌디에고 이문상 (공62) 시카고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용환 (공71) 소진문 (치58) 윤경순 (사61)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한익일 (공62) 홍청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한국남 (공57)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희백 (의55) 정영자 (사60) 최준환 (농58) 워싱턴 DC 나연수 (사54)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박상근 (법75)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준영 (치74) 정원자 (농62) 최귀재 (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최종진 (의6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서갑식 (공70) 텍사스 천양국 (의63)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필라델피아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신성식 (공56)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지흥민 (수61) 하와이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하재청 (문67)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상순 (상67) 300 김영배 (미61) 200 윤석철 (상60) 2,000 양은석 (음70) 200 이범식 (공61) 2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700 신응남 (농70) 1,500 조남천 (사59) 3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61) 3,000 미네소타 강순건 (문57) 1,000 김권식 (공61) 50,000 북가주 황만익 (사59) 200 조지아 이종석 (의54) 100	워싱턴 DC 권철수 (의68) 2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지부 장학금 후원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10,000	평의원회 후원금 뉴욕 신응남 (농70) 500 장학기금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1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200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중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1차)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 께서는 12월 20일까지 광고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광고는 12월까 지만 게재됩니다. 감사합니다.	<input type="checkbox"/> SNUAA Scholar Program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웹사이트 광고비	광고비	TOTAL \$ _____		
<input type="checkbox"/> \$ 500 (1년) <input type="checkbox"/> \$ 1,000 (1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뒷면 표지)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일반)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400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명	업소 주소		전화번호	
Check #	Date		Signature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292

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os Angeles,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reet
 Los Angeles, CA 90010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
 Diamond Bar, CA 91765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ree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1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모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T: 213-380-5060 (LA, CA)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siloamchung@gmail.com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os Angeles,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의료/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nu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nu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운송/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
 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oa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ree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nu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ree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 VA, MN

기계/기술/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재정/보험/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 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 Seoul Korea |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oa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encevilla Hwy,
 Lilburm,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 **SNUAA Forum**
- **Entrepreneurship Network**
- **SNUAA Market**

우리 동창회는 동문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Platform을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ADVERTISE WITH US



contact@snuaa.org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윤(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광고섭외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디자인: 오은아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최승희(사회),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랑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윤(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랑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unaa.org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69) T: (818) 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회장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84)
 T: (778) 866-8312
 chris.van.bc@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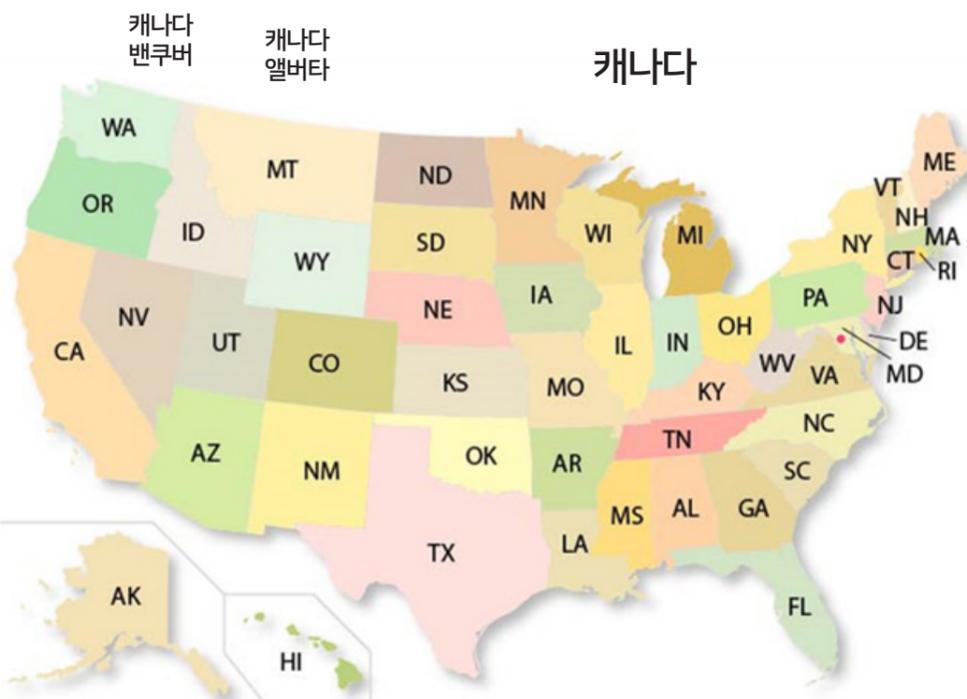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78)
 T: (503) 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건축학과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86) T: (301) 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이동균(공대75) T: (847)644-4807
 회장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80) T: (516) 776-0449
 nomacast@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욱현(경영대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91) T: (781) 812-8778
 imtenor@hot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85) T: (469) 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73)
 mungjchoi@hot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85)
 T: (828) 242-7150
 hwajin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91)
 회장 kunhok@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들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65)
 T: (561) 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김자성 정신과

진료 분야

소아부터 노년 정신의학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부부 상담

타주에서도 원격진료 가능

TMS 치료 제공

김자성 (의대 79)

TEL 213.797.5953

505 SHATTO PL. #204, LOS ANGELES, CA 90020

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시술을 경험하십시오

유니케어 수술센터

UNICARE SURGERY CENTER

안과 수술 전문의

이은기 안과 전문의

Dr. Grant Lee

-Stanford University Graduate
-UCLA Medical School Graduate
-USC Doheny Eye Institute Residency



LOCATION:
ROWLAND HEIGHTS, ANAHEIM

탈장·치질 수술 전문의

최상휘 외과 전문의

Dr. Sang H. Choi, M.D.

-Trusted General Surgeon
-Board certified in General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미국 일반 외과 보드 전문의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SPECIALIZED SERVICES
전문 진료 서비스

Hernia and Hemorrhoids
(탈장 및 치질 전문의)

Wound Care (운드 케어)

Various Surgical Procedures & Consultations
(각종 외과 수술 및 상담)

LOCATION:
LOS ANGELES, ANAHEIM

미국 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www.unicaresurgery.com

각종 HMO, PPO 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취급, 여행자 보험, CMM 기독의료상조회

문의전화 714-332-5000

1741 W. Romneya Dr. #B, Anaheim, CA 92801

CMM 기독의료상조회
회원 할인혜택

문의전화 714-520-0809

1736 W. Medical Center Dr. #B, Anaheim, CA 92801

김진세 · 다니엘 김

DR. CHIN SE KIM, M.D.

DR. DANIEL R. KIM, M.D.

미국 내과 · 스포츠의학과 보드전문의

스포츠 부상 전문 치료병원 / 근골격계 통증, 신경통증 전문의
P.R.P. (자가혈청) Regenerative Therapy (재생 치료)

USC 의과대학 레지던트 TRAINING 지정병원



Dr. Chin Se Kim, M.D.

-미국내과보드 전문의
-미국스포츠의학보드 전문의

전문진료 분야

일반 내과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 응급치료
각종 통증 치료:
관절염, 통풍, TMJ, 목/허리 디스크, 견비통, 두통
최신 물리치료: 연골 주사 치료 (무릎관절염)
종합 진단검사: 혈액, 초음파, 심전도, 체성분 검사
Sport Injuries:탈골, 골절치료, Cast, Custom brace
수술 후 재활치료, 중풍 물리치료



Dr. Daniel R Kim, M.D.

-Yale University 졸업
-UC Irvine School of Medicine
-USC 내과 레지던트 수료
-Rush University Hospital Fellowship 수료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미국 스포츠의학보드 전문의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손가락 시술 센터
최첨단 C-Arm 통증치료
각종 내과 질환 종합검진
할인 Program 제공

무릎연골주사 전문센터

Nanodyne

Measurement Systems, Inc.

*World leader in replacement
microscope illuminators by
microscope manufacturer*



18
Products



49
Products



29
Products



40 Products
and many more!

Nanodyne Measurement Systems

info@nano-dyne.com
sales@ nano-dyne.com
651-323-8592



B&L Nicolas



Ring Light



Nikon Labophot



Olympus BX50/51

www.nano-dyne.com



황효숙 (시대65) CFO

651.308.0796

sook@nano-dyne.com